

魏晉 隋唐代 古墳壁畫의 天文星宿圖 考察

金 一 權

1. 서론
2. 위진십육국시기 고분벽화의 천문성수도
 - 1) 遼寧 西官營子 北燕 馮素弗 부부묘 (415)의 일월성상도
 - 2) 투르판 아사탑나 제13호묘(16국시기)의 日月七星圖
 - 3) 투르판 아사탑나 제39호묘(東晉시기)의 七星板
3. 남북조시기 고분벽화의 천문성수도
 - 1) 北魏 元乂墓(526)의 天象星宿圖
 - 2) 東魏 茹茹公主墓(550)의 天象圖
 - 3) 北齊 婁叡墓(570)의 日月星宿圖와 十二生肖圖
 - 4) 北齊 崔芬墓(551)의 日月星宿圖
 - 5) 北齊 道貴墓(571)의 日月·南北斗
- 방위 표지 체제
4. 수당대 고분벽화의 천문성수도
 - 1) 太原市 金勝村 6호 唐墓(696?)의 일월·사신·성상도
 - 2) 太原市 金勝村 7호 唐墓(696?)의 일월·사신·성상도
 - 3) 唐懿德太子 李重潤墓(706)와 永泰公主 李仙蕙墓(706)의 일월성상도
 - 4) 唐章懷太子 李賢墓(711)의 일월성상도
 - 5) 투르판 아사탑나 제76호묘의 絹本 복희·여와 일월성수도
 - 6) 투르판 아사탑나 제38호묘(7C中-8C中)의 日月·二十八宿圖
 - 7) 唐代의 敦煌 星圖와 全天 星圖 자료
5. 결론

1. 서론

본 논문은 고구려 고분벽화의 천문 세계관이 지니는 특성과 배경을 이해하는 일환으로 같은 시기 중국의 고분벽화에 나타난 天文星宿 관념을 살펴보는 목적에서 준비되었다.

고구려 벽화고분은 4세기에서 7세기에 이르는 300여년에 걸쳐 만주와 북한 지역에 1997년 현재 90여기 이상 확인되었으며, 그 중 22기 벽화고분에 별자

리그림이 그려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구려 천문성수 관념의 주된 특징이 동서남북 사방위에 고유한 방위 별자리 체계를 마련한 대목으로 파악되었으며, 아울러 그 “사방위 별자리”와 더불어 日月象 및 四神圖의 세 가지 천문 요소로써 묘실의 천문 방위 표시 시스템을 구축하였었다.⁽¹⁾ 이같은 특성이 과연 고구려의 독자적인 방식인지 아니면 중국의 경우에도 적용된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

그런데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고구려의 자료는 고분벽화로 한정되지만, 중국의 경우는 墓室壁畫 외에 漆畫, 帛畫, 畫像磚·畫像石, 石窟壁畫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이 중 칠화나 백화의 것은 대개 한대 이전의 자료로 전해지며, 화상전·화상석 자료는 주로 후한대에 집중되며, 석굴벽화는 실크로드를 통한 불교 문화의 전파 과정과 연관된다. 이들 외에 문헌 도상으로 전해지는 자료나 불교와 도교의 寺觀壁畫도 중국의 천문성수 관념을 파악하는데 중요하며, 천문지나 오행지 등 천문 관련 문헌 사료의 분석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이렇게 가용 자료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일차적 문제부터 매우 복잡하지만, 본고의 관심사가 고구려 고분벽화에 매어 있으므로, 그 시기를 위진에서 수당대까지로 좁히며, 재료도 고분벽화 양식을 위주로 설정하려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이같은 제한을 어느 정도 넘나들어, 가급적 다양한 접근을 시도한다.

현재(1994)까지 파악된 위진수당대의 벽화고분은 대략 80여기이며,⁽²⁾ 그 중 약 16기 고분에서 별그림이 확인된다. 벽화고분의 갯수는 발굴 작업이 지금도

(1) 리준걸, 1983 「고구려 별그림의 특징」 『역사과학』 83-2기, pp.27-31 ; 리준걸, 1984 「고구려 벽화무덤의 별그림에 대한 연구」 『고고민속논문집』 9, pp.2-58

김일권, 1996 「고구려 고분벽화의 별자리그림 考定」 『백산학보』 47호, 백산학회 (日譯 金井塚良一, 1998 「高句麗壁畫の星座圖の考定」 『研究紀要』 3号, 日本山武考古學研究所) ; 1996 「고구려 고분벽화의 天文 관념 체계 연구」 『진단학보』 82호, 진단학회 ; 1997 「고구려 고분벽화의 천문사상 특징」 『고구려연구』 3집, 고구려연구회 ; 1998 「고구려 고분벽화의 북극성 별자리에 관한 연구」 『고구려연구』 5집, 고구려연구회

(2) 宿白 主編, 1989 『墓室壁畫』, 中國美術全集 繪畫編 12, 北京, 文物出版社 ; 黃新亞, 1994 『中國魏晉南北朝藝術史』, 北京, 人民出版社 ; 劉士文·陳奕純·王本興, 1994 「中國隋唐五代藝術史」, 北京, 人民出版社 등에서 제시된 위진 수당대 묘실벽화는 82기 정도이다. 이들에 대한 발굴보고서나 논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추가된 4개의 자료는 본고에 반영되어 있다.

진행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지만, 이 정도의 범위 내에서 위진수당대 고분벽화의 천문성수 관념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위진수당대의 고분벽화에 대한 전체 범위와 개략적인 특성을 도표로 정리하면서, 천문성수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가급적 그림 자료와 함께 그 내용을 자세히 분석하여, 고구려의 것과 비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시기구분은 중국의 발굴 보고서나 논문 등에서 제시한 것을 기본적으로 따랐으며, 이에 東晉 十六國 시기를 魏晉시대에 덧붙여 처리하였다.

2. 위진십육국시기 고분벽화의 천문성수도

〈표 1〉 魏晉十六國 壁畫墓 개요

벽화시기	벽화묘 이름	발굴	게재 문헌	참고 내용
동북지구 魏晉 시기묘 (9기)	遼陽 三道壕 魏令支 令 魏晉 張君墓		李文信, 「遼陽發現的三座壁畫古墓」 (『문물참고자료』 55년 5기)	家居宴飲圖
	遼陽 三道壕 窯業 二場 1·2호묘		東北博物館, 「遼陽 三道壕 兩座壁畫墓的 清理簡報」 (『문물참고자료』 55년 12기)	
	遼陽 三道壕 窯業 四場 벽화묘		李文信, 「遼陽發現的三座壁畫古墓」 (『문물참고자료』 55년 5기)	
	遼陽 上王家村 벽화 묘		李慶發, 「遼陽 上王家村 晉代壁畫墓 清理簡報」 (『문물』 59년 7기)	家居宴飲圖
	朝陽 袁臺子 東晉시 기 石室壁畫墓	1982	遼寧省博物館 文物隊·朝陽地區博物 館·朝陽縣 文化館, 「朝陽 袁臺子 東 晉壁畫墓」 (『문물』 84년 6기)	日月, 四神圖, 人 大於山
	遼寧 北票 西官營子 北燕 馮素弗 부부묘 (1·2호묘)	1965	黎瑤渤, 「遼寧 北票縣 西官營子 北燕 馮素弗墓」 (『문물』 73년 3기)	1호묘 槲項에 日月星辰 圖, 車馬出行圖 / 2호묘 별그림(일부 연결선)
	朝陽縣 大平房 東晉 壁畫墓		朝陽地區博物館·朝陽縣文化館, 「遼 陽 朝陽 發現 北燕·北魏墓」 (『고고』 85년 10기)	仕女圖
중원지 구 晉代 墓(1기)	河南 靈寶 坡頭村 磚砌 대형 多室墓	1955	俞劍華, 「河南 靈寶 晉墓壁畫」 (『中國 壁畫』, 中國古典藝術出版社, 1958, p.77)	車馬出行圖
강남지 구 晉代 墓(2기)	浙江 上虞縣 東關의 東晉 太寧 壁畫墓		王伯敏, 『中國繪畫史』 (上海人民美術 出版社, 1982, p.107, 108)	鳳鳥
	雲南 昭通縣 後海子 東晉 霍承嗣墓	1963	雲南省 文物工作隊, 「雲南 昭通 後海 子 東晉壁畫墓 清理簡報」 (『문물』 63 년 12기)	四神圖(右青龍, 左 帛虎, 朱雀, 玄武 의 墨書 傍題)

河西지구 魏晉 시기 (12기)	嘉峪關 酒泉 新城 1호·2호묘(曹魏시기), 3호·4호·5호·6호·7호묘(西晉시기)	1972-77	甘肅省 文物隊·甘肅省 博物館·嘉峪關市 文管所, 『嘉峪關壁畫墓 發掘報告』, 文物出版社, 1985 /張朋川, 『河西出土的漢晉繪畫簡述』(『문물』 78년 6기)	曹魏 甘露 2년(257) 朱書 紀年陶壺 출토, 廚炊宴飲圖 /6호묘에 靑龍 白虎
	嘉峪關 新城 12호·13호묘		嘉峪關市 文物管理所, 『嘉峪關 新城 12·13号 畫像磚墓 發掘簡報』(『문물』 82년 8기)	*嘉峪關 1호묘 胡族 段氏의 段胄 畫像
	觀蒲 9호묘		甘肅省 博物館, 『酒泉·嘉峪關 晉墓的發掘』(『문물』 79년 6기)	*嘉峪關 石廟子灘 壁畫墓 /下河清 五城河墓 /永昌縣 東四溝 畫磚墓
	酒泉 下河清 1호·8호 벽화묘	1956	甘肅省 文管會, 『酒泉 下河清 第1号墓 和 第18号墓 發掘簡報』(『문물』 59년 10기)	
河西지구 16國 시기 (2기)	敦煌 佛爺廟 翟宗盈墓	1944	夏鼐, 『敦煌考古漫記』(『考古通訊』 55년 1기)	靑龍
	酒泉 丁家閘 5호묘(西涼·北涼시기)	1977	甘肅省 博物館, 『酒泉·嘉峪關 晉墓的發掘』(『문물』 79년 6기)	三足鳥 日象과 東王公, 蟾蜍 月象과 西王母, 靑龍
新疆 투르판지구 東晉 16국시기(7기)	新疆 吐魯番 阿斯塔那 古墓群 제39호묘(동진시기)	1963	新疆 維吾爾 自治區博物館, 『吐魯番縣 阿斯塔那-哈拉和卓 古墓群 清理簡報』(『문물』 73년 10기)	木棺 七星板
	吐魯番 哈喇和卓 벽화묘 5좌 (94-98호묘, 北涼)	1975	新疆 博物館 考古隊, 『吐魯番 哈喇和卓 古墓群 發掘簡報』(『문물』 78년 6기)	97호묘 벽화에 원형 日象과 반달모양 月象
	吐魯番 阿斯塔那 古墓群 제13호묘(16국)	1964	『新疆 維吾爾 自治區博物館』(文物出版社, 1991) 圖錄 No.142	日月과 두 개의 北斗七星(紙本畫)
돈황석굴벽화 (16국北朝시기)	敦煌 三危山 莫高窟(366년) 壁畫 제249굴		段文杰, 『十六國時期的敦煌藝術』, 『敦煌研究文集』, 甘肅人民出版社, 1982	천정 남쪽에 西王母, 북쪽에 東王公, 동쪽에 乘龍, 人頭龍身의 開明神獸
	敦煌 三危山 莫高窟(366년) 壁畫 제285굴		『中國魏晉南北朝藝術史』(黃新亞, 人民出版社, 1994)	동쪽에 伏羲·여와가 남북으로 대대, 가슴에 日月 /四神圖, 雷公, 羽人 등
	河西 麥織山 石窟壁畫		『中國魏晉南北朝藝術史』(黃新亞, 人民出版社, 1994)	雲星紋

魏晉十六國 시기의 벽화묘는 대략 33기이며, 遼陽과 河西 지구 등 주로 북조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중원 및 강남지구의 것은 매우 적다(그림 1 분포도). 이들 벽화묘에 대한 개요는 <표 1>과 같다.

이 중에서 遼寧 北票縣 西官營子 지역의 北燕 馮素弗 부부묘에서 별그림이

확인되었으며, 그의 日月象 또는 四神圖가 그려진 고분으로 雲南 昭通 後海子 東晉 霍承嗣(곽승사)墓, 朝陽 袁臺子 東晉 石室 壁畫墓, 酒泉 丁家閘 5호묘가 있으며, 신강 투르판 지역의 것도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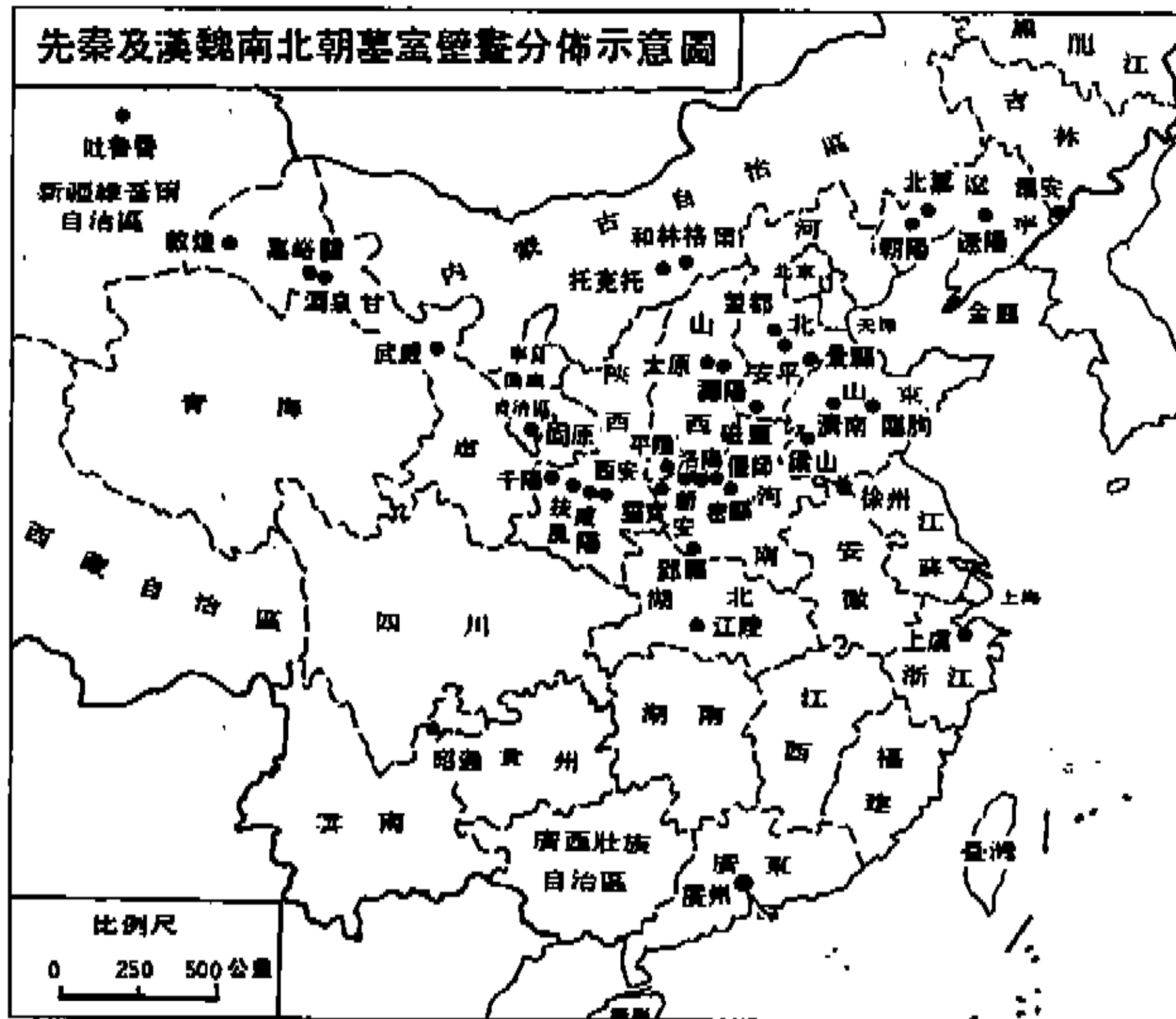


그림 1 秦漢~南北朝 墓室壁畫 분포도 (『墓室壁畫』 p.3)

1) 遼寧 西官營子 北燕 馮素弗 부부묘(415)의 일월성상도

1965년 9월 遼寧 北票縣 西官營子에서 발견된 北燕(409-436) 馮素弗 부부묘는 同墳異葬의 장방형 석곽묘이다. 무덤 안에서 '范陽公章', '車騎大將軍章', '大司馬章', '遼西公章' 등 印章 4매가 출토되었는데, 『晉書·馮跋載記』에 서술된 馮素弗의 官爵과 부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北燕 天王 馮跋의 아우인 馮素弗은 주요 지배 계층 중 한 사람으로, 北燕 太平 7년(415)에 추하였으며, 약 30세의 나이로 추정된다. 두 무덤의 벽면 白灰상에 인물, 출행, 家居, 건축물, 黑犬 등 몇가지 彩繪 壁畫가 남아 있으며, 槨頂에는 日月星象을 그렸다. 1호묘 그림에서 三梁冠을 쓰고 白面微鬚에 용모가 청수한 頭像 그림이 있는데 아마 풍소불의 像으로 보인다. 馮素弗의 妻屬으로 여겨지는 2호묘의 북벽 家居圖 중 18명의 侍女는 모두 高髻를 올렸으며 상반신에 저고리(襦)를 입고 하반신

에 치마(裙)를 입었다. 軒車出行圖에 나오는 10여명의 侍女는 손에 器物을 들거나 둥근 부채 또는 華蓋 등의 목이 긴 儀仗을 들었다. 이런 회화의 풍격들은 漢魏로부터 남북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한다.⁽³⁾

1호묘의 石槨 뚜껑돌 星象圖(그림 2)는 연결된 아홉 조각의 돌판에 日月星雲을 그렸다. 서쪽에서 시작하여 4번째 돌판 남쪽에는 金鳥가 들어있는 듯한 붉은 원반의 日象이 있으며, 3번째 돌판 가운데에는 열은 黃色의 月象 속에 옥 토끼가 그려져 있다. 돌판 전체에는 원점으로 된 별들을, 동쪽 4쪽에는 紅色으로 서쪽 5쪽에는 黃色으로 첫째 돌판에는 綠色으로 그렸다. 그 사이 사이에 流雲이나 은하수로 여겨지는 띠그림이 보인다.

2호묘의 석곽 안쪽 천정 부위에도 黃色 원점에 연결선을 지닌 별자리 그림이 있으며, 그 사이로 연결선이 없는 紅色 별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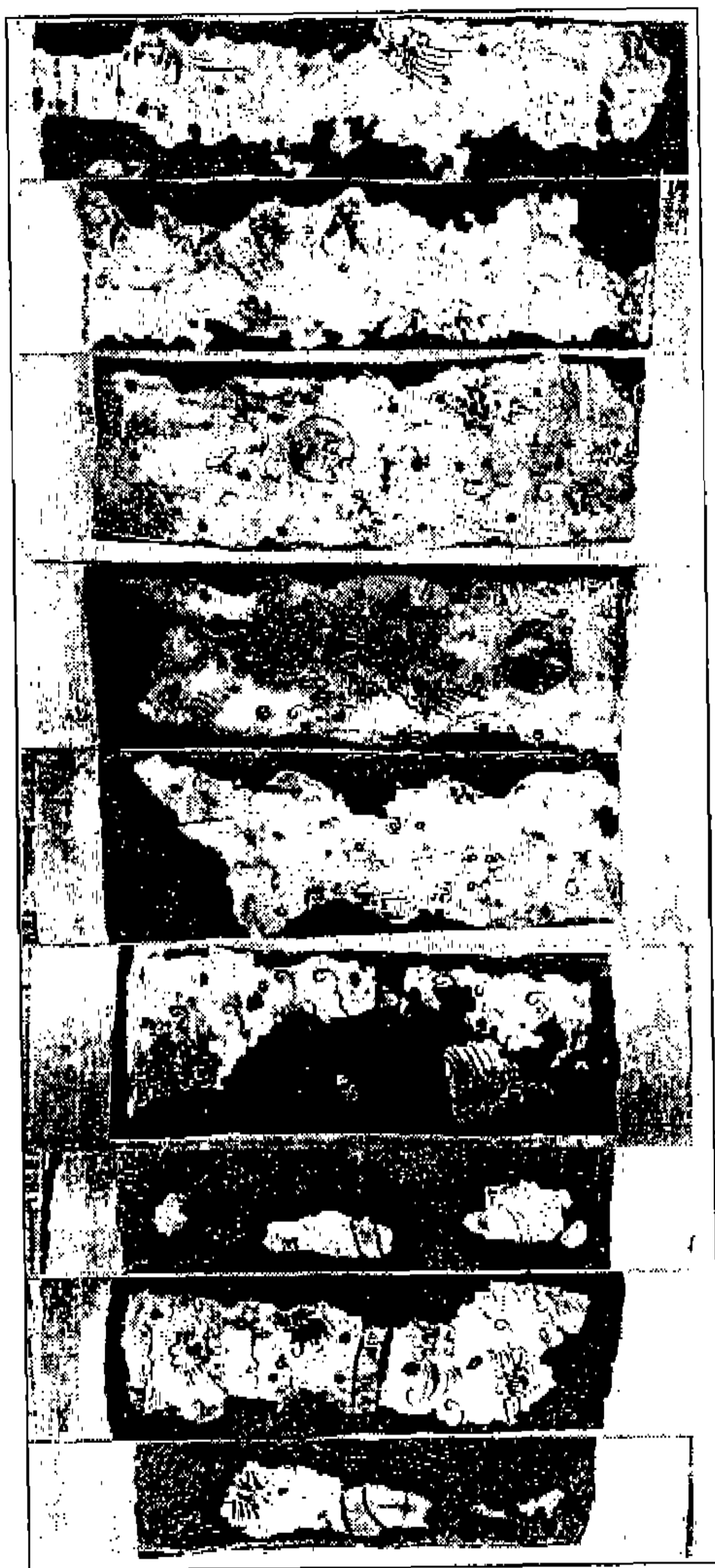


그림 2 遼寧 北票縣 北燕 馮素弗墓(415)의 日月星象圖 (『中國古代天文文物圖集』 No.54, 좌우상하 각기 북남서동 방위)

(3) 湯池, 「漢魏南北朝的墓室壁畫」 (『墓室壁畫』, 中國美術全集 繪畫編 12), p.10

(4) 黎瑤渤, 「遼寧 北票縣 西官營子 北燕 馮素弗墓」 (『文物』 73년 3기), pp.11-14

이같이 1호묘의 日月星象圖에 많은 별들이 그려져 있으나 적당한 간격으로 골고루 전체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특정한 별자리를 묘사하였다기보다는 일종의 별자리 장식처럼 보인다. 이런 측면은 동한 화상석의 장식용 성수도와 유사한 느낌이며, 唐墓 벽화의 분위기와도 상통한다.

2) 투르판 아사탑나 제13호묘(16국시기)의 日月七星圖

1964년 신강 투르판 아사탑나 제13호묘에서 출토된 종이 회화 그림에서 묘주인 부부 윗부분에 日月七星圖가 그려져 있어 주목된다. 왼쪽 위 모서리에 두꺼비가 있는 月象과 北斗七星이 있으며, 오른쪽 위 모서리에는 三足鳥가 있는 日象이 그려져 있고 이와 좀 떨어진 중앙 부분에 다시 北斗七星이 자루 부분이 심하게 꺾인 채 그려져 있다.⁽⁵⁾ 日象과 月象이 좌우에서 서로 마주하고 그 사이에 북두칠성이 두 개나 그려진 점이 자못 흥미롭다(그림 3). 이같은 2개의 北斗와 日月象 형식은 중원 지역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으며, 오히려 장천1호분의 경우처럼 고구려 고분벽화의 분위기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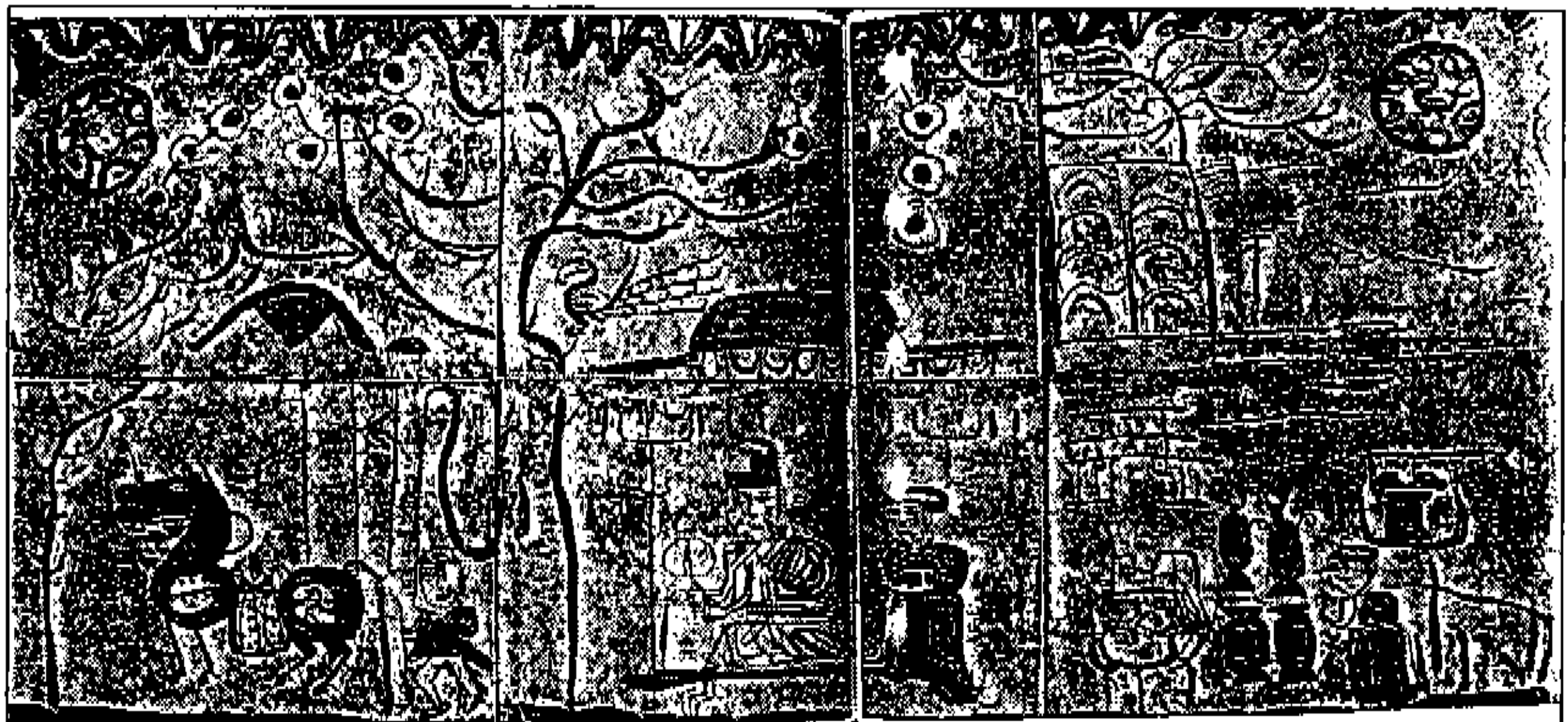


그림 3 新疆 吐魯番縣 阿斯塔那 13호묘(십육국시기)의 日月七星圖
(『新疆維吾你自治區 博物館 圖錄』 No.142, 左上 月象, 右上 日象)

(5) 『新疆 維吾你 自治區博物館 圖錄』 (1991. 文物出版社) No.142

다음의 아사탑나 39호묘(東晉 시기)의 七星板 자료가 보여주는 모티프도 이와 연관되는 듯하다. 그외 吐魯番 哈喇和卓 97호 벽화묘(北凉시기)에서도 원형의 日象과 반달 모양의 月象이 벽면 좌우 상부에 확인된 바 있으며,⁽⁶⁾ 敦煌 三危山 莫高窟(366) 중 제258굴의 石窟壁畫에서 四神圖와 함께 日月象을 가슴에 안은 복희·여와 그림이 묘사되어 있다.⁽⁷⁾

3) 투르판 아사탑나 제39호묘(東晉시기)의 七星板

아사탑나 39호묘(65TAM39)는 東晉 시기의 무덤으로 추정되며, 젊은 婦女 木俑 및 낙타 木俑과 함께 升平 11年(東晉 穆帝, 367) 賣駝契와 升平 14年(370) 文書가 출토되었다. 이곳의 木棺 頭檔 위에 北斗七星으로 보이는 7개의 흑색 원점이 그려져 있다.(그림 4) 이것은 “床上唯施七星板”(『顏氏家訓』 제7 終制 제20)이라는 맥락과 연관지어 설명되는데,⁽⁸⁾ 七星에 내세의 안녕을 희구하는 七星板 신앙의 흔적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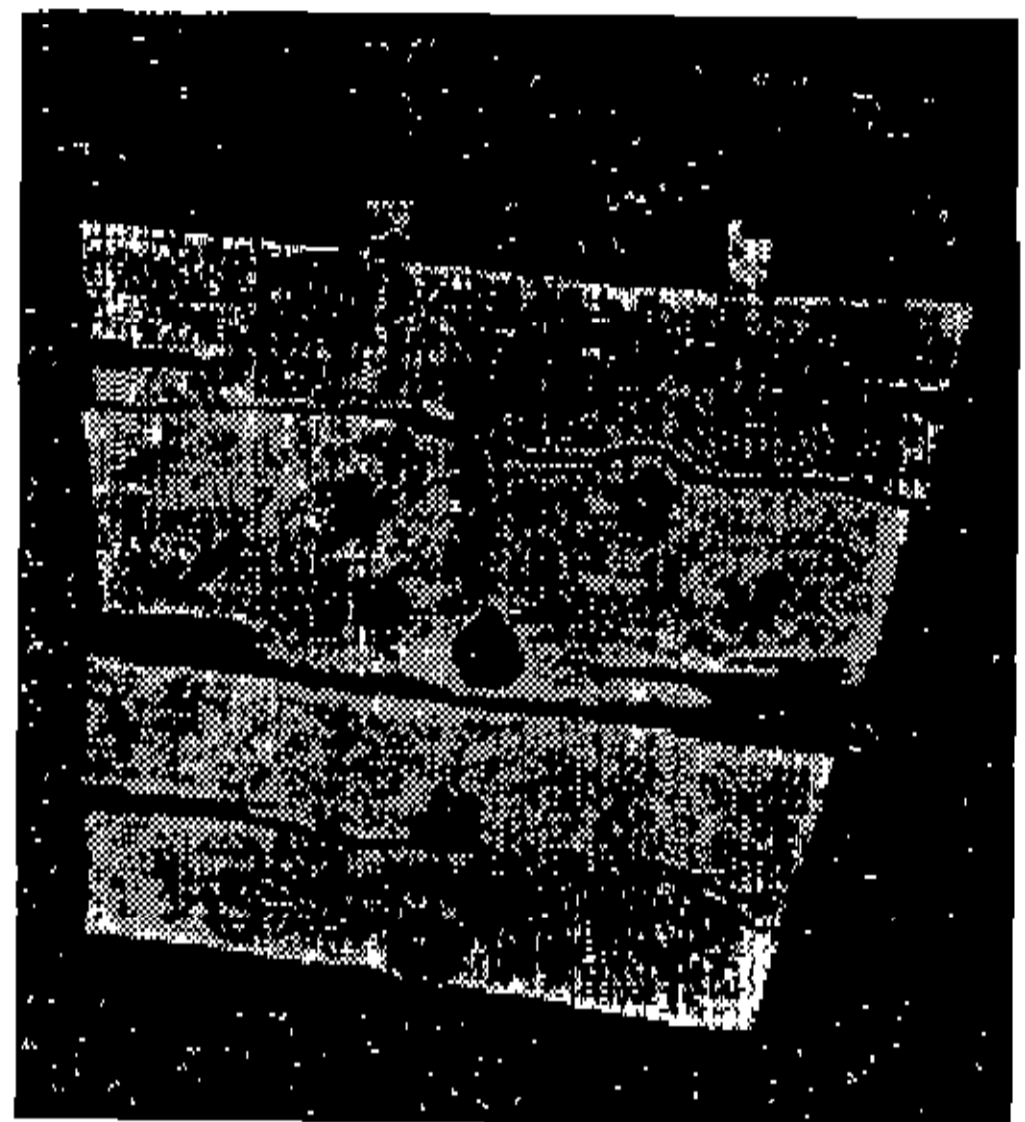


그림 4 투르판 아사탑나 39호묘(東晉시기)의 七星板
(『문물』 73년 10기)

이상 투르판 지역의 東晉十六國 시기 두 고분은 기본적으로 무덤 문화에서 조망되므로 묘주인이 내세에서의 영원한 삶을 北斗七星에 기대는 사후 관념을 드러낸 자료로 주목된다. 이러한 복두칠성에 대한 강한 내세관 관념이 실크로드 통로 중의 하나인 신강 투르판 지역에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나라나 중국에서의 칠성 신앙을 좀더 보편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게 한다. 특히 후술되는 바와 같이 唐代的 투르판이나 돈황 지역 성수 자료를 살펴보면 이같은 문화가 단편적인 특성이 아님을

(6) 新疆 博物館 考古隊, 「吐魯番 哈喇和卓 古墓群 發掘簡報」(『문물』 78년 6기)

(7) 黃新亞, 1994 『中國魏晉南北朝藝術史』, p.35

(8) 新疆 維吾爾 自治區博物館, 「吐魯番縣 阿斯塔那 - 哈喇和卓 古墓群 清理簡報」(『문물』 73년 10기)

잘 보여주며, 중원지역과는 좀다른 느낌을 가져다 준다.

3. 남북조시기 고분벽화의 천문성수도

〈표 2〉 南北朝시기의 벽화요 개요

벽화시기	벽화요 이름	발굴	게재 문헌	참고 내용
北魏·東魏·西魏墓 (5기)	河南 洛陽 北魏 江陽王 元乂墓(526년)		洛陽博物館, 「河南洛陽 北魏元乂墓 調査」(『문물』 74년 12기)	300개의 星宿圖(일부 연결선), 은하수, 四神圖
	陝西 咸陽 胡家溝 西魏 侯義墓(544년)	1984	咸陽市文管會·咸陽博物館, 「咸陽市 胡家溝 西魏 侯義墓 清理簡報」(『문물』 87년 12기)	朱紅色 星座圖(연결선 있음)
	河北 磁縣 東陳村 東魏 堯氏 趙郡君墓		磁縣文化館, 「河北 磁縣 東陳村 東魏墓」(『고고』 77년 6기)	
	河北 景縣 東魏 高長命墓	1973	河北省文管處, 「河北 景縣 北魏 高氏墓 發掘簡報」(『문물』 79년 3기)	거의 脫락, 人身獸首鳥
	河北 磁縣 大塚營 東魏 茹茹公主墓(550년)	1978	磁縣文化館, 「河北 磁縣 東魏 茹茹公主墓 發掘簡報」/湯池, 「東魏 茹茹公主墓 壁畫試探」(『문물』 84년 4기)	묘실에 四神圖와 天象圖(심한 훼손) /墓道 좌우 靑龍과 白虎
北齊墓 (9기)	磁縣 東槐樹 北齊 馮翊王 高潤墓(576년)	1975	磁縣文化館, 「河北 磁縣 北齊 高潤墓」/湯池, 「北齊 高潤墓壁畫簡介」(『고고』 79년 3기)	流雲, 日象?(심한 박락)
	太原 王郭村 北齊 東安王 婁叡墓(570년)	1979	山西省考古研究所·太原市文管會, 「太原市 北齊 婁叡墓 發掘簡報」(『문물』 83년 10기)	四神圖, 日月星宿, 12生肖圖 /마니보주, 散花
	山東 臨朐 冶源 海浮山 東魏 威烈將軍·行臺府長史 崔芬墓(551년)	1986	山東省 文物考古研究所·臨朐縣文化館 清理 發掘簡報	四神圖, 日月星象圖, 方相氏
	山西 壽陽 賈家莊 北齊 定州刺史 庫狄迴洛墓(562년)	1973	王克林, 「北齊 庫狄迴洛墓」(『고고학보』 79년 3기)	甬道 東西벽에 靑龍, 白虎, 朱雀, 忍冬, 인물
	河北 磁縣 東陳村 北齊 懷州刺史·征西將軍 堯峻墓	1975	磁縣文化館, 「河北 磁縣 東陳村 北齊 堯峻墓」(『문물』 84년 4기)	羽人, 朱雀, 蓮花
	山東 濟南 馬家莊 北齊 祝阿縣令 道貴墓(571년)	1984	濟南市博物館, 「濟南市 馬家莊 北齊墓」(『문물』 85년 10기)	日月象(日西月東)과 北斗·南斗六星
	濟南 南郊 東八里洼 北齊 壁畫墓	1986	山東省文物考古研究所, 「濟南市 東八里洼 北齊壁畫墓」(『문물』 89-4)	병풍 인물, 수목
	河北 磁縣 講武城 제56호 北齊 壁畫墓	1957	河北省文管會, 「河北 磁縣 講武城 古墓 清理簡報」(『고고』 59년 1기)	인물, 蓮花
	太原 南郊 北齊 壁畫墓	1987	山西省考古研究所·太原市文管會, 「太原南郊 北齊壁畫墓」(『문물』 90년 12기)	인물풍속도, 神仙, 神獸

北周墓 (2기)	寧夏 高原 深溝村 李賢墓(569년)	1983	寧夏回族自治區博物館·寧夏高原 博物館, 『寧夏 北周 李賢 夫婦墓 發掘簡報』(『文物』85년 11기)	儀衛圖, 伎樂圖
	陝西 咸陽 底張灣 北周 杜歡 壁畫墓 (572년)	50년 대초	北周 杜歡墓 壁畫 形象 (『文物 참고자료』54년 10기 도판 98)	남녀 侍從 형상
南朝墓 (1기)	河南 鄧縣 學莊 彩 色 畫像磚墓		河南省 文化局文物工作隊, 『鄧縣 彩色 畫像磚墓』, 文物出版社, 1958년	飛仙圖

남북조시기의 묘실벽화는 주로 하남, 하북, 산둥, 산서, 섬서, 녕하 등 주로 북조지역에서 17기 가량 발견되었다(그림 1 분포도). 墓葬의 평면구조상으로 보면 北魏 이래 보통 유행하던 弧方形 單室墓에, 비스듬한 墓道와 甬道, 墓室 등으로 구성된다. 전후실을 갖춘 구조는 매우 드문데, 河北 景縣 高長命墓 一例에 불과하다고 한다. 묘실 건축 재료는 각지역 특성에 따라 다르며, 지대가 높은 黃土高原의 寧夏, 陝西 두 성은 土洞墓, 하남, 하북, 산서 3성은 磚砌墓, 산둥성은 石室墓 혹은 磚石合構墓가 유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묘실벽화사상 중요한 변화는 몇 곳에서 거족의 墓道 壁畫가 출현하였다는 점이라 한다. 비록 戰國시대에 墓道에 벽화를 그린 예가 있지만, 墓道 벽면을 최대한 이용하여 장대한 주제를 그린 것은 北朝에서 비롯되며, 이 변화는 묘실벽화의 면적을 넓혔을 뿐만 아니라, 벽화 제재의 확대를 가능케 한 특징이 된다.⁽⁹⁾ 또한 남북조 중에서 北齊(550-577)의 존속 기간이 불과 28년인데도 가장 많은 벽화고분을 남겼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남북조 시기 벽화의 특징은 四神圖 또는 日月象에 星象圖가 병행하여 그려진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日月星宿圖 벽화는 하남 낙양 北魏 江陽王 元乂墓, 하북 磁縣 大塚營 東魏 茹茹公主墓, 磁縣 東槐樹의 馮翊王(풍익왕) 高潤墓, 태원 王郭村 발굴의 東安王 婁叡(루예)墓, 山東 臨朐 海浮山 東魏 威烈將軍·行臺府長史 崔芬墓, 山東 濟南 馬家莊 北齊 祝阿縣令 道貴墓 등 6곳이다.

(9) 湯池, 『漢魏南北朝的墓室壁畫』(『墓室壁畫』, 中國美術全集 繪畫編 12), p.12

1) 北魏 元乂墓(526)의 天象星宿圖

北魏 시기의 대표적인 벽화묘로 洛陽 北魏 孝昌 2년(526) 江陽王 元乂墓가 주목된다. 그 墓室 궁륭 천정에 비교적 완전한 1쪽의 星象 그림이 남아 있는데, 星辰 300여개 중에 많은 별들이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 성수도 가운데에 銀河가 남북을 관통하며, 서쪽에 등근 북을 두른 雷神, 동쪽에 雨師車 그림이 있다. 궁륭 천정 아래 부분에 희미하나마 분별이 가능한 四神圖가 그려져 있



그림 5 洛陽 北魏 元乂墓(526)의 天象星宿圖
(『中國古代天文文物圖集』 No.55)

어. 漢代 이래 四神을 四方位의 대표로 삼는 방식과 부합하는 것으로 여겨졌다(그림 5).

이곳의 성수도는 대부분 그 별자리가 동정된 바 있다.⁽¹⁰⁾ 단, <그림 6>의 모사도에는 연결선이 없는 수많은 장식적 별들을 배제하였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이 천상도의 가장 큰 특징은 은하수가 서북에서 동남 방향의 남북축으로 곧장 흘러 있다는 점이다. 중원 지역에서 은하수가 이렇게 걸리는 때는 대략 겨울 늦은 밤 또는 여름 새벽녘이므로 元乂墓의 별그림은 이 무렵의 것을 묘사한 것이라 한다. 이 은하수 서측에 北斗七星, 北極星座를 비롯한 紫微垣의 별자리가, 동측에는 太微垣이 있으며, 은하수 가운데에 V자 모양 3성의 五車

(10) 紫金山天文台 王車·北京天文館 陳徐, 「洛陽北魏元乂墓의 星象圖」 (『文物』 74년 12기)

座가 크게 걸쳐 있는 것으로 同定되었다.

그러나 이들 별자리가 엄밀한 관측 결과를 반영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자미원과 태미원이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반대편에 있지 않고 실제로는 같은 편에 있으며, 북두칠성 또한 은하수 가까이에 있지 않다. 그외에도 별자리들의 상대 위치나 구조 등에서 편차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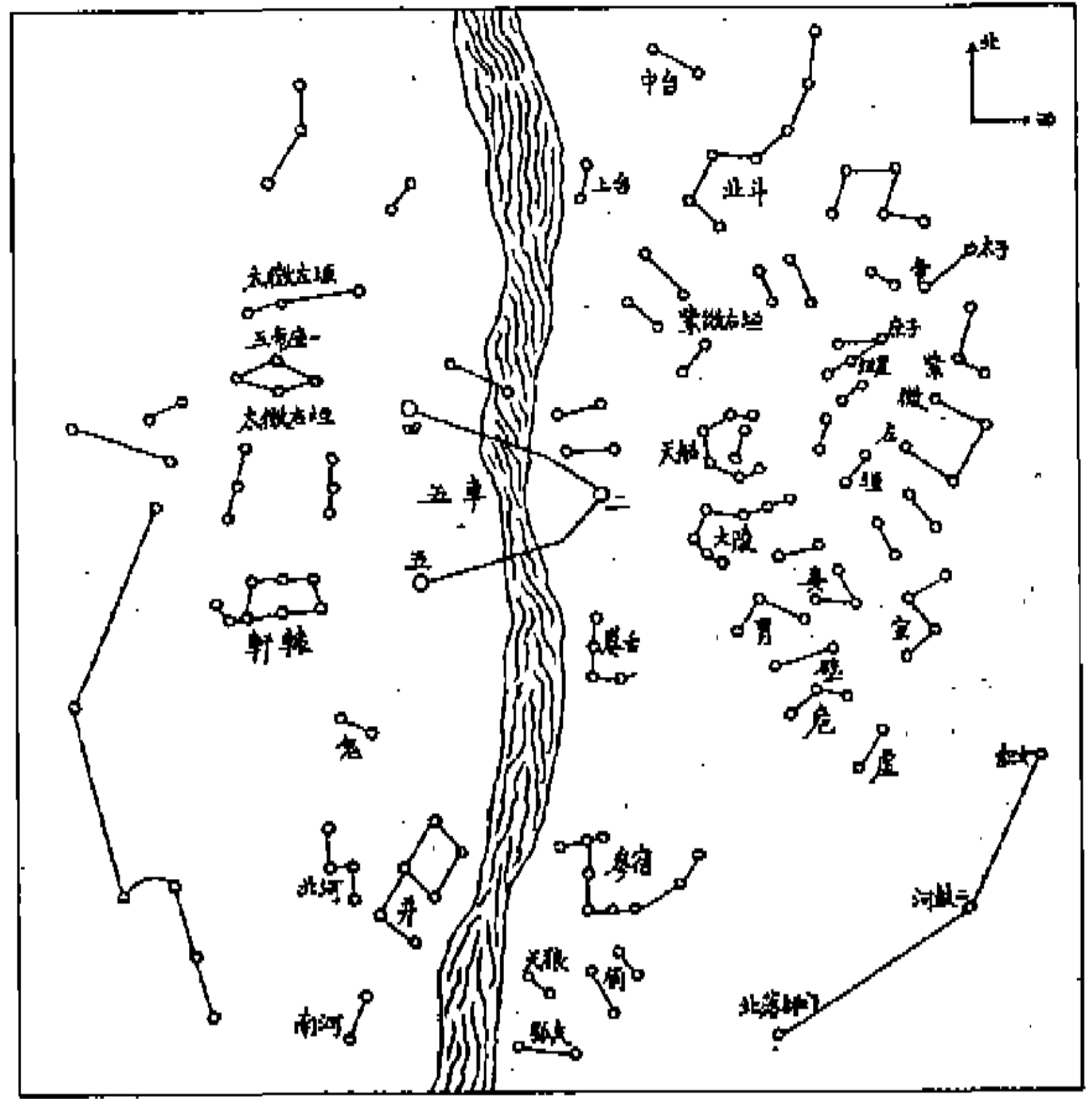


그림 6 洛陽 北魏 元乂墓(526)의 星座圖 同定
(『문물』 74년 12기, 상하좌우 각기 북남동서 방위)

매우 심하므로 <그림 6>의 동정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많다.

이렇게 실제 별자리로 同定하는 작업에 많은 한계가 있지만, 북위 시대의 천문성수 관념을 대략 엿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고구려 벽화의 성수도를 해석하는 준거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보다 120년전 고구려의 덕흥리 고분벽화(408)에서 이미 은하수 그림이 묘사되어 있어, 서로 좋은 대조를 이룬다.

이 둘을 비교하면, 덕흥리묘의 것이 술한 신화적 하늘 세계를 배경으로 남쪽 하늘 은하수에 깃든 견우와 직녀의 칠석 전설을 주요 모티프로 설정한 반면에, 원예묘의 것은 은하수를 하늘의 중심으로 삼고 그 주변으로 많은 별자리들을 그려 놓았다. 그런데 원예묘에는 연결선이 있는 별자리들 주위로 장식적인 별들이 잔뜩 묘사되어 있어, 방위별로 몇 개의 특정 별자리를 대표하여 묘사한 덕흥리묘의 분위기와는 많이 다르다. 원예묘는 또한 별자리 원점의 크기가 거의 균일하며, 천정 화면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이같은 측면은 별밤기의 등급을 반영하려는 의도가 거의 없이 단순히 천공을 별들로 장식하려는

화가의 예술적 감각을 떠올리게 한다. 원예묘와 비슷한 시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고구려 진파리4호분에서 별밖기의 등급에 따라 북두칠성이나 북극성좌 및 이십팔수를 그려놓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후술되는 唐代의 李重潤墓 後室 天象圖 또는 李賢墓 後室 天象圖에서도 원예묘에서 엿보이던 장식적 분위가 짙게 반영되어 있다.

2) 東魏 茹茹公主墓(550)의 天象圖

다음 河北 磁縣 大塚營 東魏 茹茹公主墓(550)의 묘실 천정 부분에도 天象圖를 그린 흔적이 있으나 훼손이 심하여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으며, 그 아래쪽 언저리에 四神圖와 山川樹木 그림이 확인된다고 한다. 사방 벽면에는 주로 인물풍속도를 그려 당시의 여러 생활상을 담고 있으며, 墓道 벽화는 靑龍, 白虎, 朱雀 또는 方相氏, 羽人圖, 鳳凰圖 등 상당히 신화적인 풍격을 보인다.⁽¹¹⁾

묘주인 茹茹公主(일명 鄰和公主)는 茹茹主 阿那瓌의 孫女이며, 東魏 丞相 高歡이 茹茹族과 혼인정책을 쓰면서 그녀를 제9子 高湛(고담)의 幼妻로 맞이하였다(『北史』 권98, 『宋書』 권95, 『南齊書』 권59). 東魏 武定 8년(550) 나이 13세에 추하였는데, 높은 신분 때문에 ‘送終之禮, 宜優常數’⁽¹²⁾를 다하였다 하며, 이 묘에 그려진 채색벽화는 근 150평방미터에 달하며, 東魏 최대의 벽화 작품으로 유명하다.

천정의 天象圖와 함께 사벽면에 인물풍속도 또는 사신도를 그리는 방식은 이미 고구려의 여러 고분벽화에서 보이던 방식이므로, 6세기 당시의 이러한 무덤 벽화 양식을 보다 보편적인 관점으로 비교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그런데 여여공주묘의 墓道 그림에는 현무도가 없으며 주작 또한 분명치 않으므로 온전한 사신도 체계라고 하기에는 어렵다. 따라서 사방위 맥락이 아니라 좌청룡 우백호의 두 방위 체계를 주된 안목으로 삼는 형식이라 하겠다. 다

(11) 湯池, 「東魏茹茹公主墓壁畫試探」(『문물』 84년 4기)

(12) 磁縣文化館, 「河北磁縣 東魏 茹茹公主墓 發掘簡報」(『문물』 84년 4기), p.8의 墓誌文

만 묘실 내부에 그려졌다는 사신도 자료는 아직 잘 파악이 되지 않는다.

그외 1984년 발굴된 陝西 咸陽 胡家溝의 西魏 侯義墓(544)에서도 연결선이 있는 朱紅色의 성좌도 일부가 확인된 바 있으나 박락이 심하여 어떠한 맥락인 지는 잘 파악되지 않는다.(그림 7) 묘주 侯義는 北魏 武陽公 侯剛의 손자이자 燕州 刺史 侯淵의 아들이며, 西魏 大統 10년(544) 15세로 죽은 인물이다.⁽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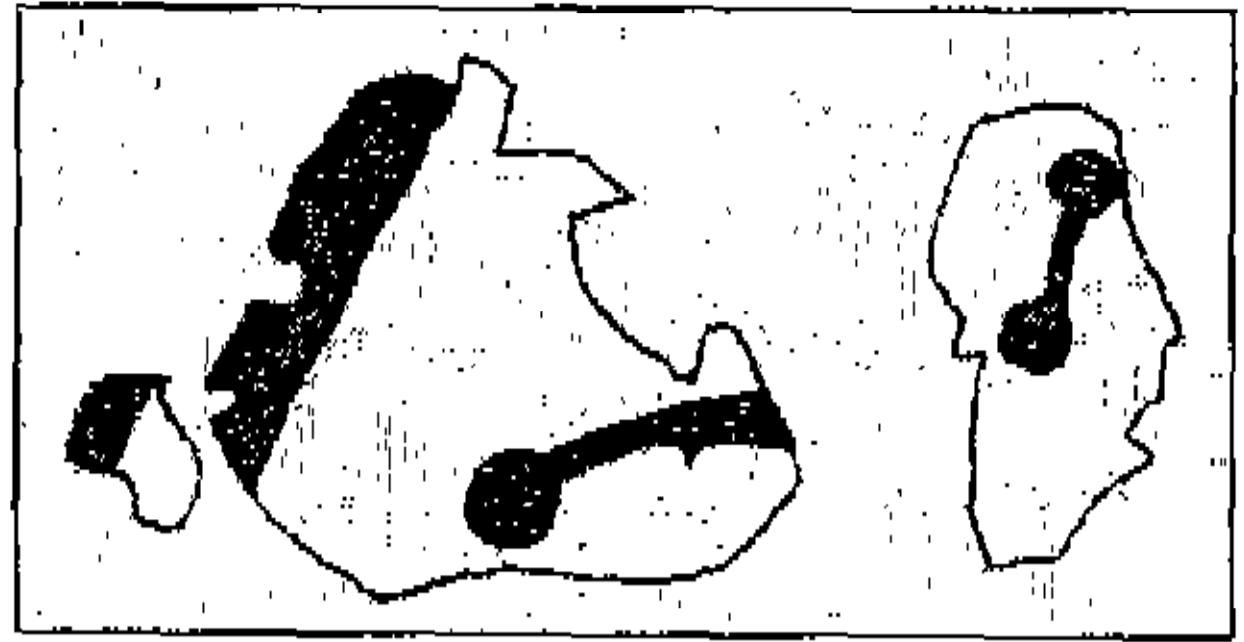


그림 7 陝西 咸陽 西魏 侯義墓의 별자리 일부 (『문물』 87년 12기)

3) 北齊 婁叡墓(570)의 日月星宿圖와 十二生肖圖

北齊(550-577)의 벽화고분은 주로 河北 磁縣과 山西 太原 부근에서 발견된다. 자현은 위치가 鄴都 서북 근교로 北齊 황실귀족들의 陵墓 구역이며, 태원은 北齊 陪都 晉陽이 있던 곳으로 鮮卑 貴戚의 근거지이다. 또한 최근에 산둥 濟南, 臨朐(임구) 등지에서 北齊 中下級 官吏의 벽화묘가 몇 개 발견되었다. 현재 9기의 북제 벽화고분 중 네 곳에 일월성수도가 확인되는데, 고구려의 영향으로 파악되는 별자리도 담겨 있어 인접한 두 나라간의 천문사상 교류 문제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들이다.

북제 왕실의 무덤으로는 1975년 발견된 磁縣 東槐樹의 馮翊王 高潤墓(576)와 1979년 太原 王郭村에서 발굴된 東安王 婁叡墓(570)가 대표적이다.

馮翊王 高潤은 묘실의 묘지명에 따르면, 渤海 條人으로 北齊 神武皇帝(高歡)의 제14자이며, 武平 6년(575)에 추하여 다음해에 入葬되었다. 또한 北齊 文襄(高澄), 文宣(高洋), 孝昭(高演), 武成(高湛) 등 네 왕의 동생이며, 後主 高緯의 叔父이다.

묘제는 弧方形 墓室에 3층의 磚室墓이며, 벽은 두터워 두께가 1m에 달하고,

(13) 咸陽市文管會·咸陽博物館, 「咸陽市 胡家溝 西魏 侯義墓 清理簡報」 (『문물』 87년 12기)

墓室 内の 직경이 6.45m이다. 현재 墓道와 甬道の 벽화는 거의 파악하기 힘들며, 묘실 4벽면의 白灰 표면에 채색벽화가 남아 있다. 묘실 후벽에 묘주인이 장막 내에 단정히 앉은 모습과 그 양옆에 각각 6명의 華蓋, 羽葆(우보)를 든 사람 혹은 물건을 진상하는 侍衛 그림 등이 있고, 좌벽에는 牛車出行, 시종 2인이 보인다. 묘실 천정부에 天象 流雲 또는 金鳥 그림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나, 현재 그 내용을 거의 알아볼 수 없다.⁽¹⁴⁾

다음 東安王 婁叡는 高歡의 妻 婁后의 內侄로, 北齊의 文襄, 文宣, 孝昭, 武成 등 4帝의 姑表兄弟가 되는데, 생전에 東安君王, 太尉, 太傅, 太師를 受封하였으며, 食邑 2천호로 당시 가장 顯貴한 外戚이라 한다. 武平 원년(570)에 추하였다.

길이 21.03m의 비스듬한 墓道 兩壁을 상중하 세 칸으로 나누어, 儀衛出行과 歸來 장면 및 駝馬 무리, 조별로 나뉜 騎衛, 鼓吹 樂隊 등을 그렸는데, 이는 당시 선비족 貴戚이 외출할 때 동원되는 행렬을 묘사한 것이라 한다.

天井 및 甬道の 상단에는 神獸, 雲氣, 摩尼寶珠, 散花 등을, 중단에는 기둥을 떠받치는 門吏 力士를 그렸다. 묘실 천정부에 天象과 12支 生肖 그림이 보이며, 아래쪽 언저리 墓門에 雷公·電母와 청룡, 백호, 현무 등의 四神圖가 남아 있다. 좌우 양벽에 羽人前導 및 仙人이 龍虎를 타고 昇天하는 장면과 雷公이 북을 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묘실 후벽에 묘주인이 장막내에 앉아있고, 좌우벽에 묘주 출행을 위해 준비하는 鞍馬牛車圖가 있다. 이 벽화묘의 기법은 매우 탁월하여 일반화공의 솜씨가 아니라 아마 鞍馬人物을 마음대로 그릴 수 있는 北齊 宮廷畫家 楊子華의 手筆일 것으로 추정한다.⁽¹⁵⁾

묘실 천정의 天象圖에는 동북에서 서남으로 폭 40-60cm 가량의 은하수가 흐르면서 하늘을 크게 둘로 나누고 있다(그림 8). 동쪽에 三足鳥가 있는 日象, 서쪽에 두꺼비가 있는 月象(그림의 아래쪽 원반)을 그렸다. 별은 紅色, 白色, 灰色의 세 가지로 그렸으며, 北魏의 洛陽 江陽王 元乂墓(526)의 천상도와 유사한 느낌을 준다. 다만 박락이 심하여 현재 15개 가량의 별이 남아있다. 그

(14) 磁縣文化館, 「河北磁縣 北齊高潤墓」(『考古』 79년 3기); 湯池, 「北齊高潤墓壁畫簡介」(『考古』 79년 3기); 湯池, 「漢魏南北朝的墓室壁畫」(『墓室壁畫』, 中國美術全集 繪畫編 12), p.13



그림 8 太原 北齊 婁叡墓(570) 천정 성수도
(『문물』 83년 10기, 아래쪽 원반이 두꺼비 月象)

중 일부는 연결선을 지니는데 무슨 별자리인지 아직 불확실하다. 또 긴 꼬리를 지니는 流星도 보여 아마 화가가 隕石雨 장면을 묘사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외 고대 신화나 儒道佛 사상을 엿보게 하는 천상 세계 그림은 남북조 후기 유행하는 벽화 양식을 담고 있다고 한다.⁽¹⁶⁾ 끝으로 고취악대의 나팔 모양이 긴 삼각형 모양으로 고구려의 끝이 휘어진 나팔 모양과 다른 점이 인상적이다.

十二生肖圖는 천정 아래 묘실 상부의 전체에 3개씩 사방에 둘러져 있으며, 그 중 鼠(정북방), 牛 虎 兔(정동방) 등 4개 生肖像이 현존한다. 12생초의 모습은 사람 몸에 神獸 머리 혹은 神獸 몸에 관복을 입은 관리의 持物이나 頭冠으로 없기도 한다. 그런데 루예묘의 것은 단지 神獸 형상만으로 간단히 처리하였다. 이와 유사한 작품으로 일본 나라현 正倉院 소장의 聖武天皇 유물로 전해지는 布幕 十二辰圖가 주목되며, 거기에 용의 꼬리, 닭의 머리, 개의 다리,

(15) 湯池, 「漢魏南北朝的墓室壁畫」(『墓室壁畫』, 中國美術全集 繪畫編 12), p.13

(16) 山西省考古研究所·太原市 文物管理委員會, 「太原市 北齊 婁叡墓 發掘簡報」(『문물』 83년 10기); 吳作人·宿白·湯池 등 10人, 「筆談太原北齊婁叡墓」(『문물』 83년 10기)

돼지의 꿈무늬 모습의 채색그림이 남아있다고 한다.⁽¹⁷⁾ 이런 十二辰이 그려진 것으로 기존에는 湖北 武昌, 湖南 長沙, 湘陰, 泗川 萬縣의 隋唐墓가 전부였었는데, 이제 婁叡墓에서 발견되었으며, 현재 다시 北京 八寶山의 遼墓 벽화에서도 확인되었다.⁽¹⁸⁾ 따라서 十二辰은 비록 그 내용이 『論衡·物勢篇』에 있다하더라도 아직 형상화되기 이전의 것이며, 복제 루예묘의 것은 현재까지 무덤 속에 十二支像을 그린 최초의 작품이 된다.⁽¹⁹⁾ 이러한 배경은 통일신라시대에 매우 발달하는 十二支神像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4) 北齊 崔芬墓(551)의 日月星宿圖

다음 北齊 中下級 관리들의 벽화묘로 현재까지 ①山東 臨朐 海浮山 東魏 威烈將軍·行臺府長史 崔芬墓⁽²⁰⁾ ②山西 壽陽 賈家莊 北齊 定州刺史 庫狄迴洛墓⁽²¹⁾ ③하북 磁縣 東陳村 北齊 懷州刺史·征西將軍 堯峻墓⁽²²⁾ ④山東 濟南 馬家莊 北齊 祝阿縣令 道貴墓⁽²³⁾ ⑤濟南 東八里洼 北齊 벽화묘⁽²⁴⁾ ⑥河北 磁

(17) 宿白, 「太原北齊婁叡墓參觀記」(『文物』83년 10기)

(18) 北京文物工作隊, 1983 「北京西郊 遼壁畫墓發掘」(『北京文物與考古』)

(19) 西嶋定生, 1978 「中國·朝鮮·日本における十二支像の變遷について」(『古代東亞史論集』下卷, 東京)에 따르면, 중국에서 십이지상 출현은 四神像 이후이며, 奇禽異獸로 변한 것은 厭勝 僻邪의 의도로 파악한다. 십이지상에 관한 유물은 다음과 같다. 낙양 출토의 北魏 永熙 2년 王悅 夫婦 墓誌의 네 주변에 각기 3개씩 12개를 들렸는데, 매 다른 神獸가 새겨졌지만 오히려 12지 형상이 아니라 한다. 西安 출토의 隋 開皇 15년 段威 墓誌 덮개에 四神像과 12지상이 있으며, 낙양 출토의 開皇 20년 馬稹 夫婦 墓誌의 덮개돌에 八卦, 干支 및 獸名, 五行 문자가 새겨져 있었다. 1956년 湖北 武昌 周家大灣 隋墓 출토의 靑瓷 十二支俑이 발굴되었다. 1952년 北京 姚家井 唐墓 출토의 石彫 十二支俑이 발굴되었으며, 石俑으로는 최초의 십이지상이다. 그외 각 지역에서 十二支 銅鏡이 출토되었는데, 그 연대가 가장 빠른 것도 隋朝를 지나지 않는다. :史樹青, 「從婁叡墓壁畫看北齊畫家隨手參」(『文物』83년 10기)

(20) 北齊 天保 2년의 崔芬墓는 臨朐 冶源 海浮山 남쪽 기슭에 위치하며, 1986년 4월 발견하였다. 山東省 文物考古研究所와 臨朐縣 文化館清理의 합동으로 발굴간보를 준비 중이다. :湯池, 「漢魏南北朝的墓室壁畫」(『墓室壁畫』, 中國美術全集 繪畫編 12), p.20

(21) 王克林, 「北齊庫狄迴洛墓」(『考古學報』79년 3기)

(22) 磁縣文化館, 「河北 磁縣 東陳村 北齊 堯峻墓」(『文物』84년 4기)

(23) 濟南市博物館, 「濟南市 馬家莊 北齊墓」(『文物』85년 10기)

縣 講武城 제56호 北齊 벽화묘⁽²⁵⁾ 등이 발견되었다. 그 공통 특징은 高潤墓 및 婁叡墓와 달리 墓道에 벽화가 없고, 門牆, 甬道, 墓室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그 중 벽화가 비교적 완전히 보존된 것은 臨朐 崔芬墓와 濟南 道貴墓이며, 이 두 고분에 일월성수도가 그려져 있다.

崔芬은 北魏 望族 崔氏 때에 출세하여 東魏 말년에 南討大行臺都軍長史를 역임하였으며, 天保 원년(550)에 추하고 이듬해 臨朐 海浮山에 入葬되었다. 弧 方形의 묘실은 整齊된 石制 구조물로 건조되었으며, 後壁 및 右壁 아래 부분에 龕을 설치하였고, 甬道 남북 양 끝에 石門을 두었다. 石壁 위에 먼저 얇은 白灰를 바르고 그 위에 彩繪를 하였다. 제1 道 石門 두 쪽 위에 갑옷을 입고 방패를 지니고 武威가 돋보이는 門吏 각 1位를 그렸다.

묘실 벽화는 상중하 3단으로 구성되는데, 상단(斗形墓 천정부분)에 星象圖를, 중단에 日月象 및 四神圖를 그렸다. 이를 상술하면, 좌벽에 龍 머리가 남쪽으로 향한 仙人乘龍을 그리고 그 앞에 日象 및 導引羽人, 뒤쪽에 方相氏를 그렸다. 우벽은 仙人御虎와 호랑이 앞에 月象을 그렸으며 뒤쪽에 역시 方相氏를 그렸다. 북벽 중단에서 연속하여 龕額부분까지의 화면 중앙에 龜蛇가 뒤엉킨 玄武圖가 있는데, 그 거북 위에 仗劍을 지닌 神人이 앉아 있으며, 그 양측에 方相氏와 山巒樹木을 그렸다. 남방을 대표하는 큰 朱雀이 남벽 門洞 서쪽에 그려져 있다. 서벽 龕額부분에 묘주 부부의 出行圖와 昇天圖가 있고 시종 드는 婢僕 여럿이 뒤따른다. 묘실 하단 곧 후벽 양측 및 좌우벽에 10여점의 人物 樹木 병풍이 있고 그 중 8점 화면의 주인공들은 方形의 깔개에 앉아서, 붓을 들고 책을 잡기도 하고, 혹은 잔을 들고 飲酒하는 모습이다.⁽²⁶⁾

이처럼 최분묘는 묘실에 星象圖 외에 日月象과 四神圖를 다 그린 것으로 주목되며, 고구려의 천문 세계관 방식과 유사한 느낌을 받는다. 아직 그림 자료를 미확보한 상태이므로 구체적인 비교는 후일로 미루어야 되겠지만, 고구

(24) 山東省 文物考古研究所 清理, 1986 「濟南 南郊 東八里洼 北朝 壁畫墓」

(25) 河北省 文物管理委員會, 「河北 磁縣 講武城 古墓 清理簡報」(『고고』 59년 1기)

(26) 湯池, 「漢魏南北朝的墓室壁畫」(『墓室壁畫』, 中國美術全集 繪畫編 12), p.14 :19
86년 4월 山東省文物考古研究所와 臨朐縣 文化館清理의 합동으로 발굴하였다 하는데, 아직 그 성수도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려와 북제와의 천문사상 교섭 문제는 다음 북제 도귀묘에서도 보이듯이 매우 흥미로운 과제가 될 것이다.

5) 北齊 道貴墓(571)의 日月·南北斗 방위 표지 체계

山東 濟南 馬家莊 지역의 北齊 武平 2년(571) 祝阿縣令 道貴墓는 후벽에 묘주인이 눈을 감은 채 단정히 앉은 그림이 있고, 인물 뒤쪽에 9점의 流雲紋 병풍이 있다. 이같이 묘실에 병풍을 그리는 양식은 산동지구 北齊 묘실벽화의 주요 특징 중 하나로 얘기된다. 그의 좌우 양벽에는 車馬侍從 그림, 남북 門洞 양측에 칼을 쥔 門衛 그림이 있다. 전체적으로 屬吏가 적고 車馬가 투박한 상황이 묘주의 현령 신분을 짐작케 한다고 한다.⁽²⁷⁾ 道貴는 南陽人으로 그 성씨는 아마도 張氏로 추정되며, 北魏 말기에 태어나 東魏를 거쳐 北齊 정권 하에서 皇建 2년(561) 나이 68세로 祝阿縣(현 제남시 西郊 古城村)의 縣令으로 임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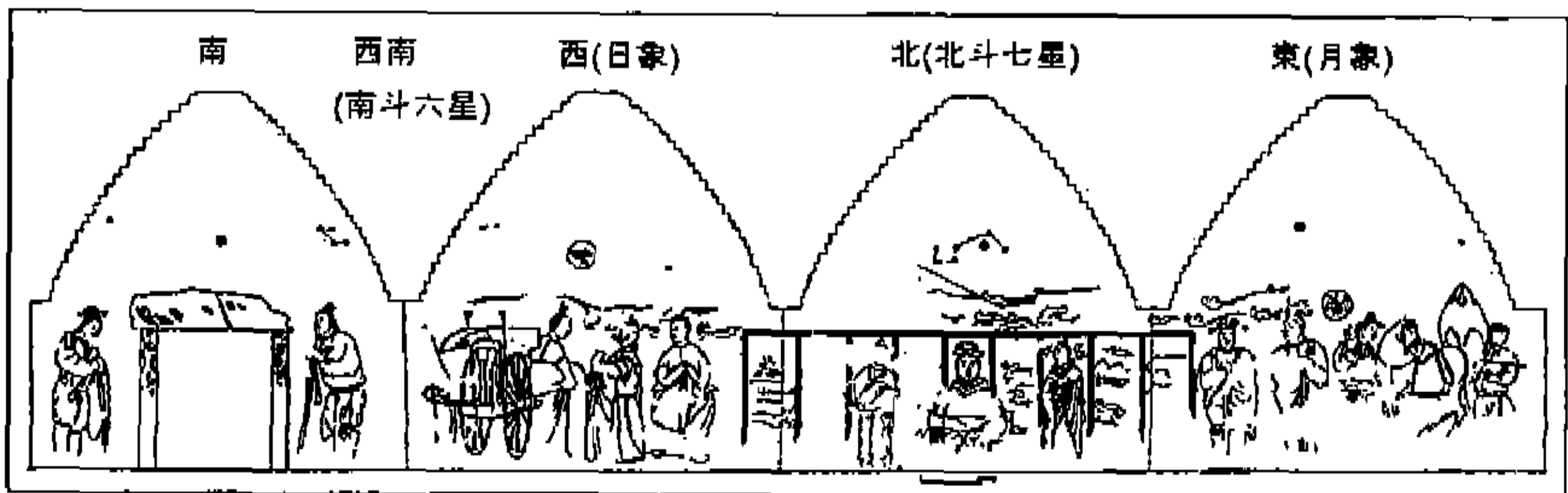


그림 9 山東 濟南 馬家莊의 北齊 祝阿縣令 道貴墓(571)의 일월성수도 (北斗·南斗, 西日象·東月象, 북두칠성 아래에 묘주인물도, 『문물』 85년 10기)

묘실 천정부에 日月星象과 流雲紋을 그렸으며, 보통과 달리 日象은 서쪽, 月象은 동쪽에 위치시켰다. 사방 각기 특정한 별자리를 赤色 圓点으로 묘사하였는데, 북쪽 천정에는 北斗七星을, 서남쪽에는 南斗六星을, 동남쪽에는 홀별 두 개를 그렸다. 서쪽에는 三足鳥가 있는 赤色의 태양을, 동쪽에는 두꺼비와 옥토끼와 계수나무가 있는 月象을 그렸다.⁽²⁸⁾ (그림 9)

(27) 湯池, 「漢魏南北朝的墓室壁畫」 (『墓室壁畫』, 中國美術全集 繪畫編 12), p.15

주목되는 점은 이전까지처럼 천정 가득히 장식적인 별그림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북쪽 천정에 北斗七星을, 남쪽 천정에 南斗六星을, 동서쪽에는 日月象을 그렸다는 점이다. 이같은 모습은 고구려의 벽화 성수도에서 이미 여러 차례 그려진 형태이다. 더구나 위진남북조 시기의 고분벽화에서 南斗六星을 그린 것으로는 이 곳 道貴墓가 처음이며, 北斗七星과 의도적으로 대비를 이룬 것 또한 처음이다.

그러한 日月象과 南北 二斗로 동서남북의 사방위를 가리키는 형식을 본인은 고구려의 독특한 '천문 방위 표지 체계'의 일종으로 범주화한 적이 있다. 4세기에서 7세기까지의 고구려 고분벽화 중에서 北斗七星과 南斗六星 및 日月象으로 사방위를 표현한 것으로 가장 빠른 것에 408년 편년의 덕흥리 고분이 있으며, 이보다 조금 빠를 것으로 여겨지는 안악1호분에도 같은 방위 표지 체계가 적용되어 있다. 이후 각저총, 무용총, 삼실총, 덕화리 1호·2호분, 집안오회분 4호·5호묘, 통구 사신총 등 많은 곳에도 확인되었다.⁽²⁹⁾

이처럼 北齊 道貴墓의 천문 방위 체계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 성립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현재까지 위진남북조 시기 중에서 이것의 모델이 될 만한 벽화 성수도를 찾기란 어렵다. 더구나 고구려의 경우는 北斗七星과 南斗六星 외에 東雙三星과 西雙三星의 동서 방위 별자리를 마련하는 등 방위 표지에 관한 체계가 매우 발달하여 있다. 그렇지만 중원 지역의 경우 이같은 사방위 별자리 형식은 아직까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제 도취묘의 방위 체계는 고구려에서 빌려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마도 고구려의 천문사상이 중원지역으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도 고구려와 북제의 천문사상 교류 문제는 한국 고대사의 지평 확대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전망이다.

(28) 濟南市博物館, 「濟南市 馬家莊 北齊墓」(『분물』 85년 10기)

(29) 김일권, 1996 「고구려 고분벽화의 별자리그림 考定」:1996 「고구려 고분벽화의 天文 관념 체계 연구」

4. 수당대 고분벽화의 천문성수도

<표 3> 隋唐 壁畫墓 제1기 (589-709) : 隋代 ~ 唐中宗 景龍 年間

벽화시기	벽화묘 이름	발굴	게재 문헌	참고 내용
隋開皇 4년(584)	山東 嘉祥縣 英山 徐敏行 夫婦 合葬墓	1976	山東省博物館, 「山東嘉祥縣 英山一號 隋墓 清理簡報 : 隋代 墓室壁畫의 首次發現」 (『문물』 81년 4기)	宴享行樂圖, 인물 풍속도
隋大業 6년(610)	寧夏 固原 史勿昭墓	1987	固原博物館 清理 發掘	인물 의장대
貞觀 5년(631)	陝西 三原 李壽墓	1973	陝西省 博物館·文管會, 「唐李壽墓 發掘簡報」 (『문물』 74년 9기)	寺院·道觀 동서로 대대, 수립출행, 의장출행
顯慶 3년(658)	長安 郭杜鎮 執失奉節(突厥人)墓	1957	賀梓城, 「唐墓壁畫」 (『문물』 59년 8기)	거의 탈락, 북벽 舞女象
麟德 원년(664)	醴泉 昭陵 陪葬墓 鄭仁泰墓		섬서성 박물관·예천현 문교국 당묘 발굴조, 「唐鄭仁泰墓 發掘簡報」 (『문물』 72년 7기)	인물, 의장출행
總章 원년(668)	西安 南郊 羊頭鎮 李爽墓	1956	섬서성 문관회, 「西安 南郊 羊頭鎮 唐李爽墓의發掘」 (『문물』 59년 3기)	인물도, 四神圖 없음
上元 2년(675)	富平 獻陵 陪葬墓 李鳳墓	1973	부평현 문화관·섬서성 박물관·문물관리위원회, 「唐李鳳墓 發掘簡報」 (『고고』 77년 5기)	侍衛 인물도
上元 2년(675)	醴泉 昭陵 陪葬墓 阿史那忠墓		섬서성 문관회·예천현 소릉문관소, 「唐阿史那忠墓發掘簡報」 (『고고』 77년 2기)	의장출행
光宅 원년(684)	醴泉 昭陵 陪葬墓 安元壽 夫婦墓	1972	昭陵博物館, 「唐安元壽夫婦墓 發掘簡報」 (『문물』 88년 12기)	侍衛 인물도
總章원년-開元년간(668-741)	咸陽 東北郊 蘇君墓	1961	섬서성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陝西 咸陽 唐蘇君墓 發掘」 (『고고』 63년 9기)	묘도 양벽에 靑龍 白虎 /인물 의장대
萬歲登封 원년(696)	太原 董茹庄 唐墓		沈振中·吳連城, 「太原市 南郊 金勝村 發現 唐墓」 (『문물』 58년 6기)	
武則天시기(696?)	山西 太原 金勝村 제6호 唐 壁畫墓	1959	산서성 문관회, 「太原市 金勝村 第六号 唐代壁畫墓」 (『문물』 59년 8기)	묘실 천정에 四神圖 및 日月象·星象圖
武則天시기(696?)	山西 太原 金勝村 제7호 唐壁 畫墓	1987	山西省 考古研究所, 「太原市 南郊 唐 代壁畫墓 清理簡報」 (『문물』 88년 12기)	묘실 천정에 四神圖, 日月象 및 星象圖
武則天시기(696?)	山西 太原 金勝村 제337호 唐壁 畫墓	1988	山西省考古研究所·太原市文管會, 「太原金勝村337号 唐代壁畫墓」 (『문물』 90년 12기)	묘실 천정에 四神圖, 日月象 및 星象圖
神龍 2년(706)	乾縣 乾陵 陪葬墓 唐懿德太子 李重潤墓	1971	섬서성 박물관·건현 문교국 당묘발굴조, 「唐懿德太子墓 發掘簡報」 (『문물』 72년 7기)	墓道 동벽 靑龍 서벽 白虎 /後室 천정 日月象 장식 별그림 /의장출행도

神龍 2년 (706)	乾縣 乾陵 陪葬墓 唐永泰公主 李仙蕙墓	1960	섬서성 문물관리위원회, 「唐永泰公主墓 發掘簡報」(『문물』 64년 1기)	묘도 동벽 靑龍, 서벽 白虎 / 前室 천정 日月象 장식 별그림 / 의장출행도
神龍 2년-景雲 2년 (706-711)	乾縣 乾陵 陪葬墓 唐章懷太子 李賢墓	1971	섬서성 박물관·건현 문교국 당묘발굴조, 「唐章懷太子墓 發掘簡報」(『문물』 72년 7기)	묘도 동벽 靑龍 서벽 白虎 / 前後室 천정 日月象, 장식 별그림 / 수렵출행, 馬毯圖, 禮賓圖(고려 사신)
景龍 2년 (708)	長安縣 南里王村 唐韋洞墓	1959	섬서성 문물관리위원회, 「長安縣 南里王村 唐韋洞墓 發掘記」(『문물』 59년 8기)	묘도 동벽 북쪽에 靑龍 남쪽에 朱雀 / 서벽 북쪽에 白虎, 남쪽에 역시 朱雀
盛唐~中唐 (7C중-8C중)	新疆 吐魯番 阿斯塔那 제38호 묘	1963	新疆 維吾爾 자치구 박물관, 「吐魯番縣 阿斯塔那 -哈拉和卓 古墓群 清理簡報」(『문물』 73년 10기)	천정에 日月 二十八宿圖
唐代	新疆 吐魯番 阿斯塔那제76호묘	1967	『新疆 維吾爾 自治區博物館 圖錄』(文物出版社, 1991) No.145	伏羲·女媧 日月星宿圖(絹畫)
盛唐시기	新疆 吐魯番 阿斯塔那 제216호묘	1972	新疆 維吾爾 자치구 박물관·吐魯番 문물보관소 발굴 / 『中國의旅行』 3권(中國 人民美術出版社·日本 講談社 聯合出版, 1980)	6쪽병풍식 인물벽화

〈표 4〉 唐代 壁畫墓 제2기 (710-756) : 唐睿宗 景雲 ~ 唐玄宗 天寶 년간

벽화시기	벽화요 이름	발굴	게재 문헌	참고 내용
景雲 원년(710)	咸陽 底張灣 萬泉縣主 薛氏墓	1953	섬서성 문관회, 함양 저장만 당묘 발굴 기록	인물 풍속도
開元 13년(725)	湖北 鄖縣 唐嗣濮王 李欣墓		高仲達, 「唐嗣濮王 李欣墓 發掘簡報」(『江漢考古』 80년 2기)	
開元 16년(728)	陝西 西安 東郊 薛莫墓		섬서성 문관회, 「西安 東郊 唐墓 清理記」(『고고통신』 56년 6기)	인물 풍속도
開元 17년(729)	西安 東郊 高樓村 馮瀋州墓	1954	賀梓城, 「唐墓壁畫」(『문물』 59년 8기)	거의 탈락 / 인물도
開元 28년(740)	廣東 韶關 張九齡墓		광동성 문관회·華南師範學院 歷史系, 「唐代 張九齡墓 發掘簡報」(『문물』 61년 6기)	
天寶 4년(745)	陝西 西安 東郊 蘇思勛墓	1952	섬서성 고고연구소 당묘공작조, 「西安 東郊 唐蘇思勛墓 清理簡報」(『고고』 60년 1기)	북벽 玄武, 남벽 朱雀 / 인물 풍속도, 胡騰舞
天寶 4년(745)	西安 東郊 韓森寨 雷府君 夫人宋氏墓		張正嶺, 「西安 韓森寨 唐墓 清理記」(『고고통신』 57년 5기)	인물 풍속도
天寶 6년(747)	咸陽 底張灣 張去奢墓	1953	賀梓城, 「唐墓壁畫」(『문물』 59년 8기)	墓道에 靑龍, 白虎 / 인물 풍속도
天寶 7년(748)	咸陽 底張灣 張去逸墓		섬서성 문관회 저장만 당묘 발굴기록	인물 풍속도
天寶 15년(756)	西安 高樓村 高元珪墓	1955	賀梓城, 「唐墓壁畫」(『문물』 59년 8기)	墓道 東西에 靑龍·白虎 / 棺床 북쪽 玄武, 남쪽 朱雀

<표 5> 唐代 壁畫墓 제3기 (756-907) : 唐肅宗 至德 初年 ~ 唐末

벽화시기	벽화요 이름	발굴	게재 문헌	참고 내용
貞元 3년 (787)	咸陽 底張灣 鄭國 大長公主墓		섬서성 문관회 함양 저장만 당묘 발굴 기록	
大和 9년 (835)	西安 韓森寨姚存古墓		張正嶺, 「西安 韓森寨 唐墓 清理記」(『고고통신』 57년 5기)	
會昌 4년 (844)	西安 東郊 郭家灘 梁元翰墓		섬서성 문관회 함양 저장만 당묘 발굴 기록	6쪽 병풍
大中 원년 (847)	西安 東郊 高樓村 高克從墓	1954	賀梓城, 「唐墓壁畫」(『문물』 59년 8기)	거의 탈락,甬道에一女象
咸通 5년 (864)	西安 西郊 棗園 楊玄略墓		賀梓城, 「唐墓壁畫」(『문물』 59년 8기)	6쪽 병풍

隋唐代 벽화고분은 隋代의 2기를 포함하여 대략 36여기에 이르며, 그 벽화 소재나 회화 풍격에 따라 크게 다음 세 시기로 구분한다(그림 10 분포도).

제1기 隋唐 벽화묘(589-709, 隋 ~ 唐中宗 景龍 年間)에 그려진 주요 제재들은 대



그림 10 隋唐代 벽화고분 분포도 (『墓室壁畫』 p.23)

략 다음 일곱 가지로 분류된다.⁽³⁰⁾ ①의장행렬(步行 의장대, 騎馬 의장대, 수레, 말, 우산, 마부, 낙타, 鞍架 등) ②사회생활(묘주인상, 唐代 鴻臚寺 官員, 외국과 소수민족 賓客, 남녀 시종, 樂舞, 庭院行樂, 馬毬, 六鶴 병풍 등) ③수렵도(기마 사냥, 매사냥 등) ④생산활동(농경, 농목 등) ⑤건축관련(성벽, 누

(30) 王仁波 「隋唐時期的墓室壁畫」(『墓室壁畫』, 中國美術全集 繪畫編 12), pp.21-22

각, 佛寺, 道觀, 闕, 斗栱 등) ⑥일월성수도(日象, 月象, 金鳥, 두꺼비, 은하수, 별자리 등) ⑦사신도(청룡, 백호, 주작, 현무 등) 이중에서 의장행렬도와 수렵출행 장면이 크게 돋보인다고 한다. 隋代 2기 및 初唐의 19기 벽화묘가 여기에 속한다(표 3).

제2기 벽화묘(710-756, 唐睿宗 景雲 ~ 唐玄宗 天寶 년간)는 묘주인의 생전 일상 家居생활이 중심적 소재로 부상하며, 수렵출행이나 의장출행 장면 등은 감소한다. 이런 경향을 보이는 벽화묘는 대략 10기이다(표 4).

제3기의 唐墓 벽화(756-907, 唐肅宗 至德 ~ 唐末까지)는 家居생활 풍속도가 성행하고, 의장출행의 제재는 더욱 쇠퇴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일상 家居생활의 분위기가 농후하다. 이 시기의 중요한 변화는 묘도 양벽에 1, 2시기에 늘 보이던 방위 표시의 靑龍·白虎와 성대한 의장출행 장면이 보이지 않는다. 묘실 서벽에 6폭 병풍(梁元翰묘, 高克從묘, 楊玄略묘 등)이 대개 그려지는 점도 이 시기의 특징이라 한다(표 5).

이상의 흐름에서 보이듯이 묘실에 천문성수도를 덧붙이는 형식은 대략 제1, 제2기에 나타나며, 그 중에서 별자리가 그려진 것은 山西 太原 金勝村 제6호·제7호 唐壁畫墓와 乾縣 乾陵 陪葬墓 중의 唐懿德太子 李重潤墓, 唐章懷太子 李賢墓, 唐永泰公主 李仙蕙墓 등에서이다. 이들의 벽화 내용을 분석하면 방위 표시에서 四神圖가 아니라 靑龍과 白虎로 간략화되어 있으며, 별그림도 별자리가 아니라 일종의 장식적 효과를 내는 특징을 보인다.

1) 太原市 金勝村 6호 唐墓(696?)의 일월·사신·성상도

1959년 3월 太原市 西南郊에서 발견된 金勝村 제6호 唐代 壁畫磚室墓에는 고구려의 천문 방위 표시 체계와 유사한 형식이 묘사되어 있어 매우 흥미롭다. 고분 시기는 그 벽화 분위기나 부장물 내용으로 볼 때 太原 董茹庄에서 발견된 唐武后 萬歲登封 원년(696)의 壁畫墓와 비슷한 점을 들어 7세기 전후의 것으로 추정한다.

묘실 내부에 12폭의 인물도가 네 벽면 白灰상에 그려져 있으며, 그 벽면 위로 靑龍, 白虎, 朱雀, 玄武의 四神圖가 그려져 있다(그림 11, 12). 천정에는 불

은 색 蓮花圖와 彩色 구름이 도안되어 있고, 그 아래 동서 양벽의 천정에는 日月星辰이 四神圖와 함께 묘사되어 있다. 천정 동벽에는 紅色의 태양 속에 三足鳥가 墨筆로 그려졌다.⁽³¹⁾

다음 묘실 천정의 서쪽 벽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고구려 약수리 고분벽화의 백호와 유사한 동세를 취한 白虎圖가 있으며, 그 위로 초생달 모양의 月象이 있고 그 사이로 별자리인 듯한 일련의 별그림이 함께 그려져 있다(그림 11).

고구려 벽화에서 4방위 별자리와 일월상과 사신도의 세 가지 천문 요소들이 함께 천문 방위 표지 체계로 묘사된 경우가 매우 많았는데, 이 금승촌 6호 당묘에서 그와 유사한 구도가 발견되는 것이다. 다만 이곳 <그림 11>의 사진 자료가 명료하지 못하여 그 별자리들의 갯수와 형태 등을 확정짓기에는 이르지만, 唐

代 고분벽화 중에서 백호와 월상과 별자리의 세 가지 천문요소가 동시에 묘사된 것으로는 매우 드문 형식이다. 앞서 北齊의 崔芬墓(551)에서도 별자리 부분이 미확인되긴 하였지만 이같은 측면이 엿보였었다. 이 문제를 금승촌 6호묘의 벽화 내용과 매우 유사한 金勝村 7호묘를 통하여 다시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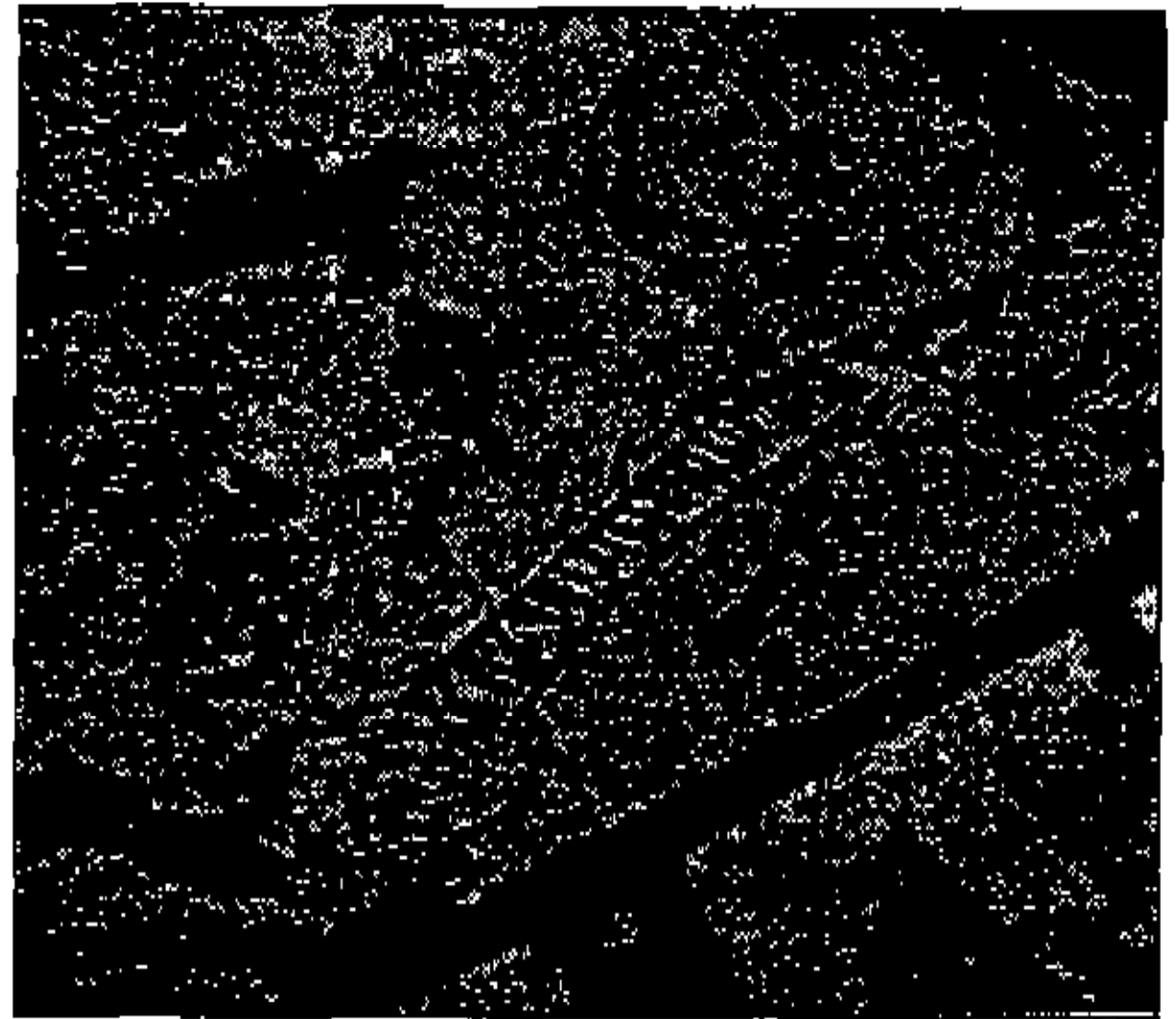


그림 11 太原 金勝村 6호묘(696?)의 白虎·月象·星象 (『문물』 59년 8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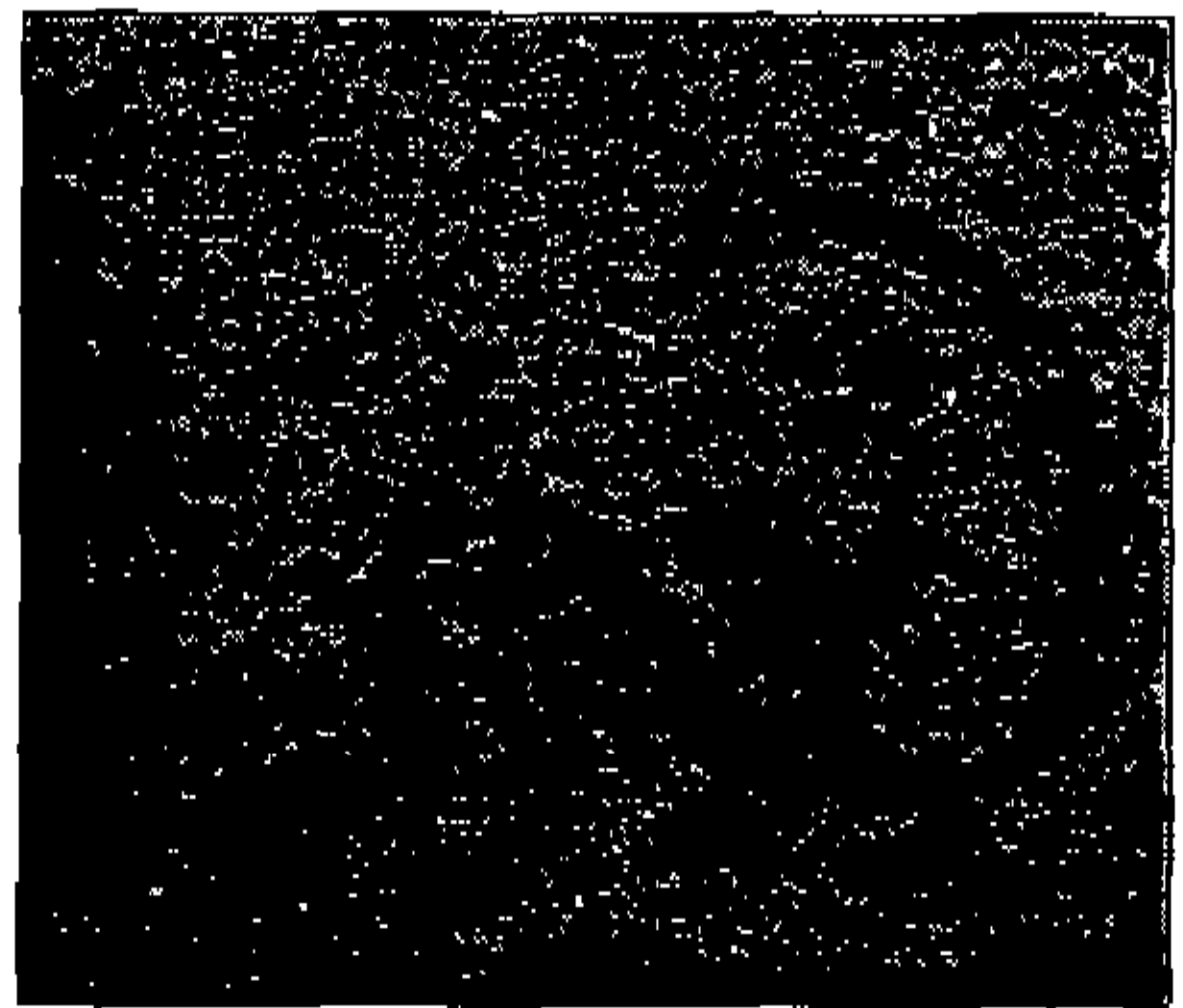


그림 12 太原 金勝村 6호묘의 玄武圖 (『문물』 59년 8기)

(31) 山西省 文物管理委員會, 『太原市 金勝村 第六号 唐代壁畫墓』 (『문물』 59년 8기)

2) 太原市 金勝村 7호 唐墓(696?)의 일월·사신·성상도

太原市 金勝村 제7호 唐代 壁畫墓(696?)는 1987년 발굴되었는데, 單室 磚墓이다. 역시 벽화 내용이나 수장품의 특징으로 볼 때 금승촌 제6호묘와 비슷한 唐武后 시기로 추정한다.

묘실 네 벽면에 10여명의 인물도가 있으며, 그 위 천정 부분에 四神圖와 日月象 및 별그림이 네 벽면에 각기 그려져 있다. 동벽 천정에 靑龍과 三足鳥의 日象이 있고 그 위로 별들이 무수하다. 서벽 역시 비슷한 형식으로 묘사되었는데, 초생달과 만월이 동시에 표현된 月象 주변으로 무수한 별들과 白虎 그림이 있다. 남벽에는 朱雀이 무수한 별들 속에 위치하며, 북벽의 현무 역시 마찬가지이다.⁽³²⁾ (그림 13~16) 1988년 발굴된 太原 金勝村 제337호묘도 이와 유사한 형식으로 묘실 천정에 日月星宿와 四神圖를 그렸다고 한다.⁽³³⁾



그림 13 太原 金勝村 7호 唐墓(696?) 동벽 천정의 靑龍·日象·星象圖 (『墓室壁畫』 No.106)

(32) 宿白 主編, 『墓室壁畫』 (中國美術全集 繪畫編 12) 圖版說明 No.102-106 참조 : 山西省 考古研究所, 『太原市 南郊 唐代壁畫墓 清理簡報』 (『文物』 88년 12기)

(33) 山西省考古研究所·太原市文管會, 『太原金勝村337号 唐代壁畫墓』 (『文物』 90년 12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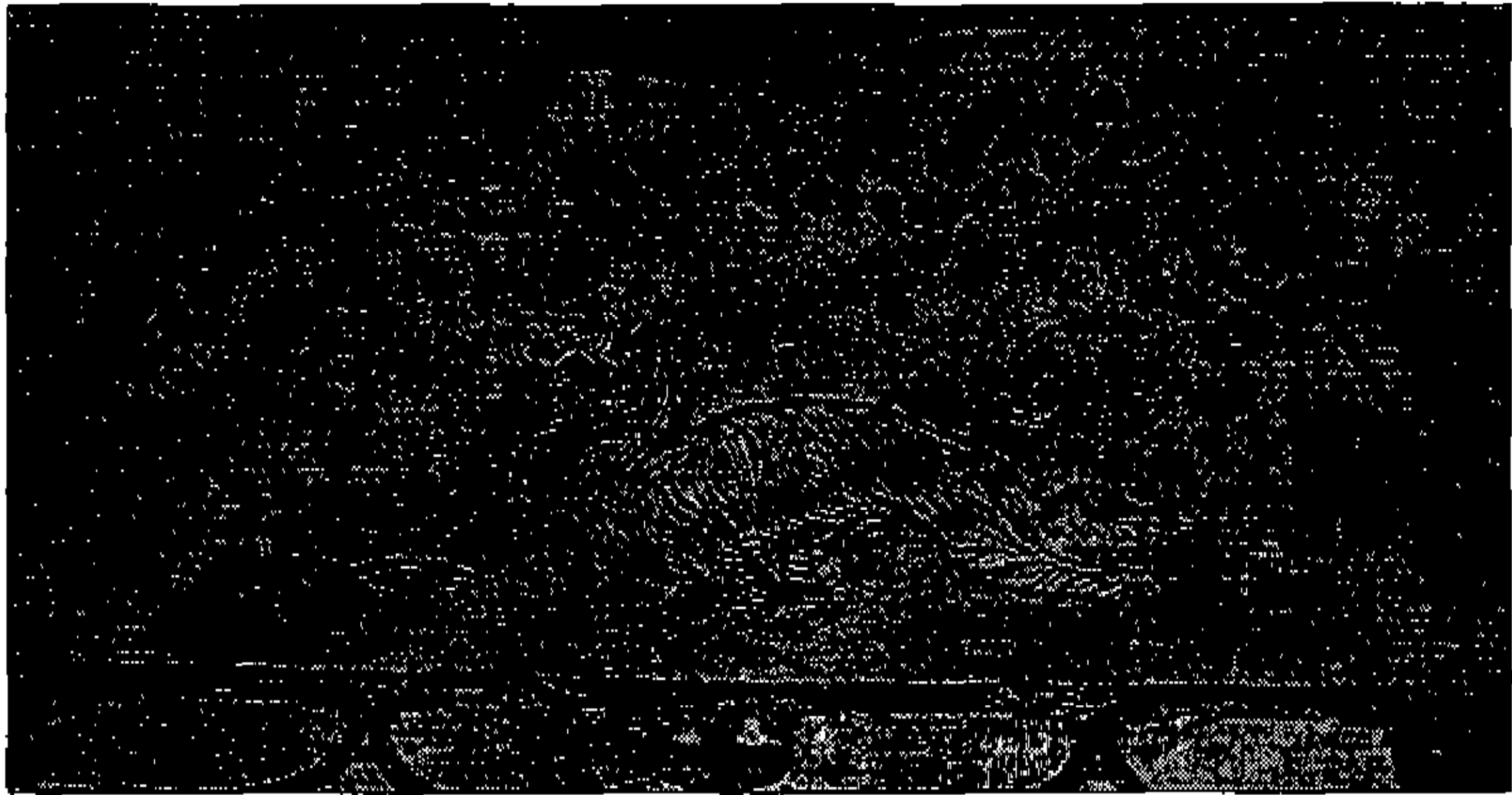


그림 14 太原 金勝村 7호 唐墓(696?) 서벽천정의 白虎·月象·星象圖 (『墓室壁畫』 No.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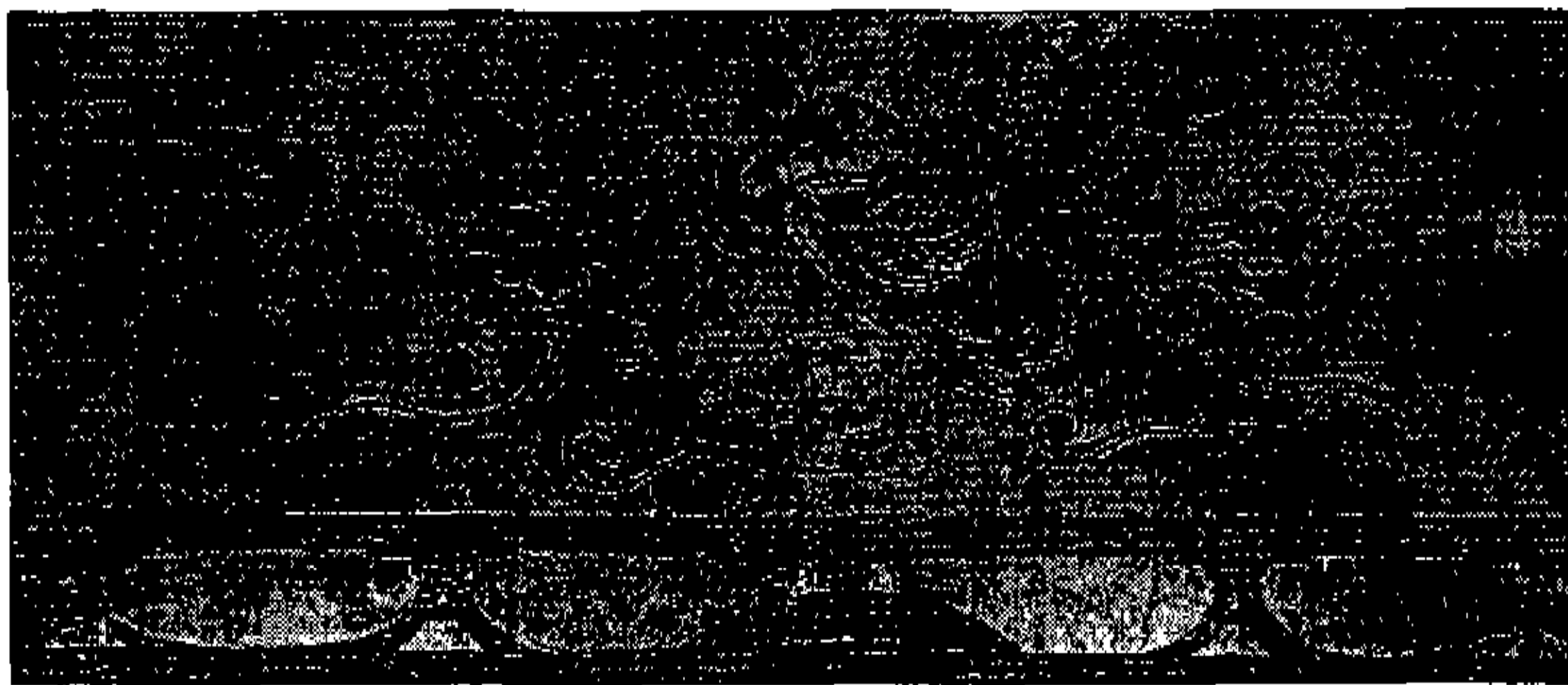


그림 15 太原 金勝村 7호 唐墓(696?) 남벽 천정의 朱雀·星象圖 (『墓室壁畫』 No.103)



그림 16 太原 金勝村 7호 唐墓(696?) 북벽 천정의 玄武·星象圖 (『문물』 88년 12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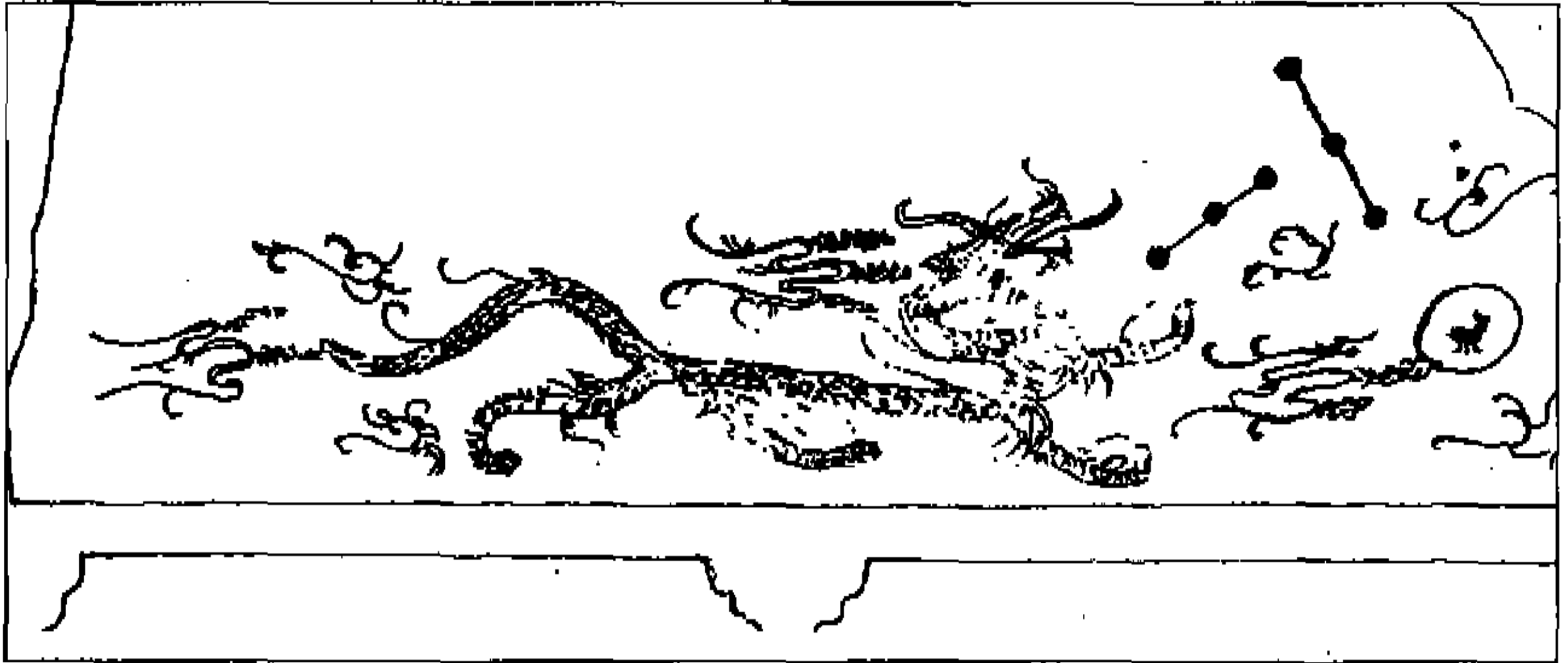


그림 17 고구려 약수리고분(5C초) 동벽의 靑龍·日象·東雙三星 (『고구려연구』 3집,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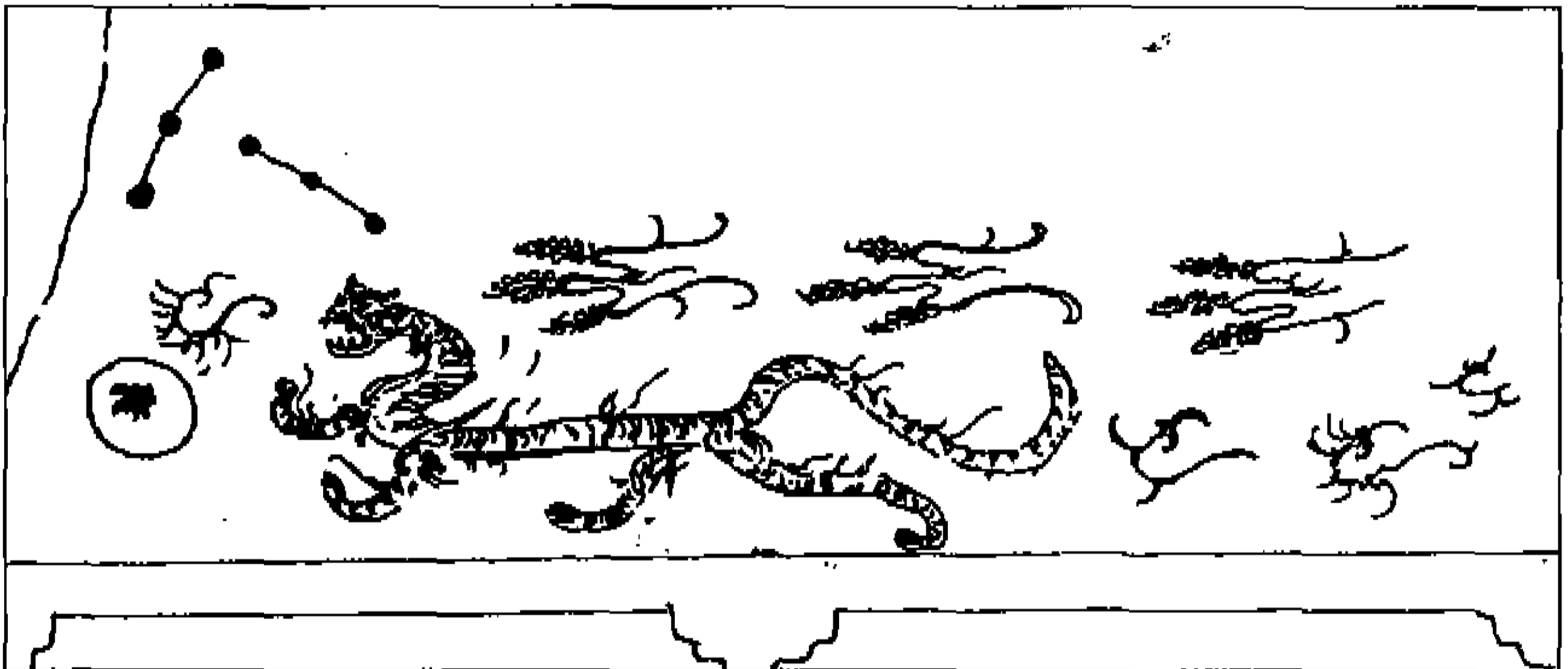


그림 18 고구려 약수리고분(5C초) 서벽의 白虎·月象·西雙三星 (『고구려연구』 3집, 1997)

이처럼 금승촌 6호묘, 7호묘의 사방 벽면은 四神圖와 日月象 및 별자리로 묘사되어 있어, 고구려의 천문 방위 형식과 유사한 측면이라 하겠다. 특히 동벽과 서벽의 장면은 고구려 약수리 고분벽화(5세기초)의 것과 매우 흡사한 구도여서(그림 17, 18), 고구려적인 천문 관념이 唐나라로 흘러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그 별들이 고구려의 경우처럼 각 방향의 고유한 방위 별자리를 묘사한 것이 아니라 무질서한 별들이 장식 문양으로 가미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四神 및 日月象, 별자리로 네 벽면을 상징하는 것은 고구려적인 맥락으로 조망되지만, 고구려와 같은 독특한 방위 별자리 관념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장식적 별그림이라는 점에서는 章懷太子 李賢墓(706)의 천정 별그림과 비슷한 분위기이지만, 금승촌 6호, 7호묘들은 각 방위별로 四神圖에 분속하여 그려진 점이 특징적이다.

이처럼 唐代 초기에는 분명한 四神圖 체제에다 네 벽면으로 별그림을 나눠 그렸었는데, 8세기 唐墓 벽화에 이르러서는 천정 가득히 별들을 채워가는 형식으로 변화하며, 사신도도 네 가지 모두가 아니라 靑龍, 白虎로 간략화시키는 등 天文에 대한 체계적인 관심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런데 靑龍 白虎의 두방위 형식은 이미 당대 이전에도 보이던 것이므로 오히려 初唐 시기의 四神圖에 대한 체계적인 관심이 고구려의 것과 대비되어 주목된다고 하겠다.

덧붙여 唐代의 그같은 경향 변화를 지역 문화의 차이로도 조망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적으로 四神圖 표현 무덤은 洛陽의 北魏 元乂墓(526)나 雲南의 東晉 霍承嗣墓 등 예외도 있지만, 주로 북조 지역인 山西, 山東 또는 東北 지역에서 발견되며, 시기도 6-7세기에 집중되어 四神圖가 그려진다. 太原市의 金勝村 6, 7호 唐墓(7C)와 앞서 朝陽 袁臺子の 東晉시기 石室墓, 北齊의 太原市 婁叡墓(570), 山東 崔芬墓(551) 등이 그려한 지역에 위치하며, 이들은 매우 강한 四神圖 전통을 보이는 고구려 지역에 보다 가까운 곳이다. 그 이외의 위진 수당대 무덤에서 온전한 사신도 표현을 찾기는 쉽지 않다. 다음 乾陵의 陪葬墓들의 벽화를 통하여 이같은 점을 살펴보자.

3) 唐懿德太子 李重潤墓(706)와 永泰公主 李仙蕙墓(706)의 일월성상도

李重潤(682-701)은 唐中宗의 長子이며, 中宗 복위 후 懿德太子로 시호하여 皇太子로 추증되면서 乾陵 동남쪽에 陪葬되었다(『구당서』 열전 36). 무덤 墓道の 동벽에 靑龍을, 서벽에 白虎를 그렸다. 무덤 前室의 벽화는 唐代 宮庭의 일상 생활을 주로 묘사하였으며, 後室 역시 그와 비슷한 내용들이다. 다만 後室 천정부에 장식적 별들이 가득하며, 동쪽에 金鳥의 日象이, 서쪽에 두꺼비의 月象이 그려져 있다.⁽³⁴⁾ (그림 19) 천정 골고루 별들이 분포하여 있다는 점이

(34) 陝西省博物館·乾縣文敎局 唐墓發掘組, 「唐懿德太子墓 發掘簡報」(『문물』 72년 7기)

장식적 측면으로 바라보게 한다.



그림 19 唐懿德太子 李重潤墓(706) 後室 日月天象圖
(『中國古代天文文物圖集』 No.57, 우측 원반이 동쪽 日象)

다음 唐永泰公主 李仙蕙墓(706) 역시 이와 비슷하다. 永泰公主는 唐高宗과 則天武后의 손녀이자 中宗의 제7녀이며, 나이 17세로 죽어(701) 駙馬都尉 武延基와 함께 合葬되었다가 神龍 2년(706) 낙양에서 陝西성 乾陵으로 옮겨져 陪葬되었다. 벽화는 묘도 및 전후실 네 벽면과 천정에 그려졌다. 묘도 양 벽에는 대형 의장대 그림이 있으며, 그 위로 묘도 동벽에는 靑龍 그림이 있고 서벽에는 白虎 그림이 있다. 무덤 前室 천정부 가득히 白色의 별들이 동북 모서리에서 서남 모서리 일대로 퍼져 있으며, 동쪽에 金鳥와 서쪽에 滿月 그림이 마주하여 있다.⁽³⁵⁾

4) 唐章懷太子 李賢墓(711)의 일월성상도

章懷太子墓 역시 이상 乾陵 陪葬墓의 벽화 내용들과 유사한 형식이다.

묘주 李賢은 唐高宗과 則天武后의 제2자로, 中宗 神龍 2년(706) 高宗과 武

(35) 陝西省文物管理委員會, 「唐永泰公主墓 發掘簡報」 (『文物』 64년 1기)

后의 乾陵에 陪葬되었으며, 사후 景雲 年間(710-711)에 章懷太子로 추봉된 인물이다.

1971년 陝西省 乾縣에서 발굴되었으며, 묘도 동벽에 「출행도」 「예빈도」 「의장도」 「靑龍圖」를, 서벽에 「馬球圖」 「예빈도」 「의장도」 「白虎圖」 등을 그린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벽 「예빈도」에 唐代 鴻臚寺 官員 3인의 인도 하에 3인의 빈객이 뒤따르는데, 『구당서』 『신당서』에 근거하여 東羅馬帝國, 高麗, 동북 소수민족 사신으로 추정되었으며, 서벽 「예빈도」의 3인 빈객은 大食國, 高昌과 吐蕃 사신으로 추정되었다.⁽³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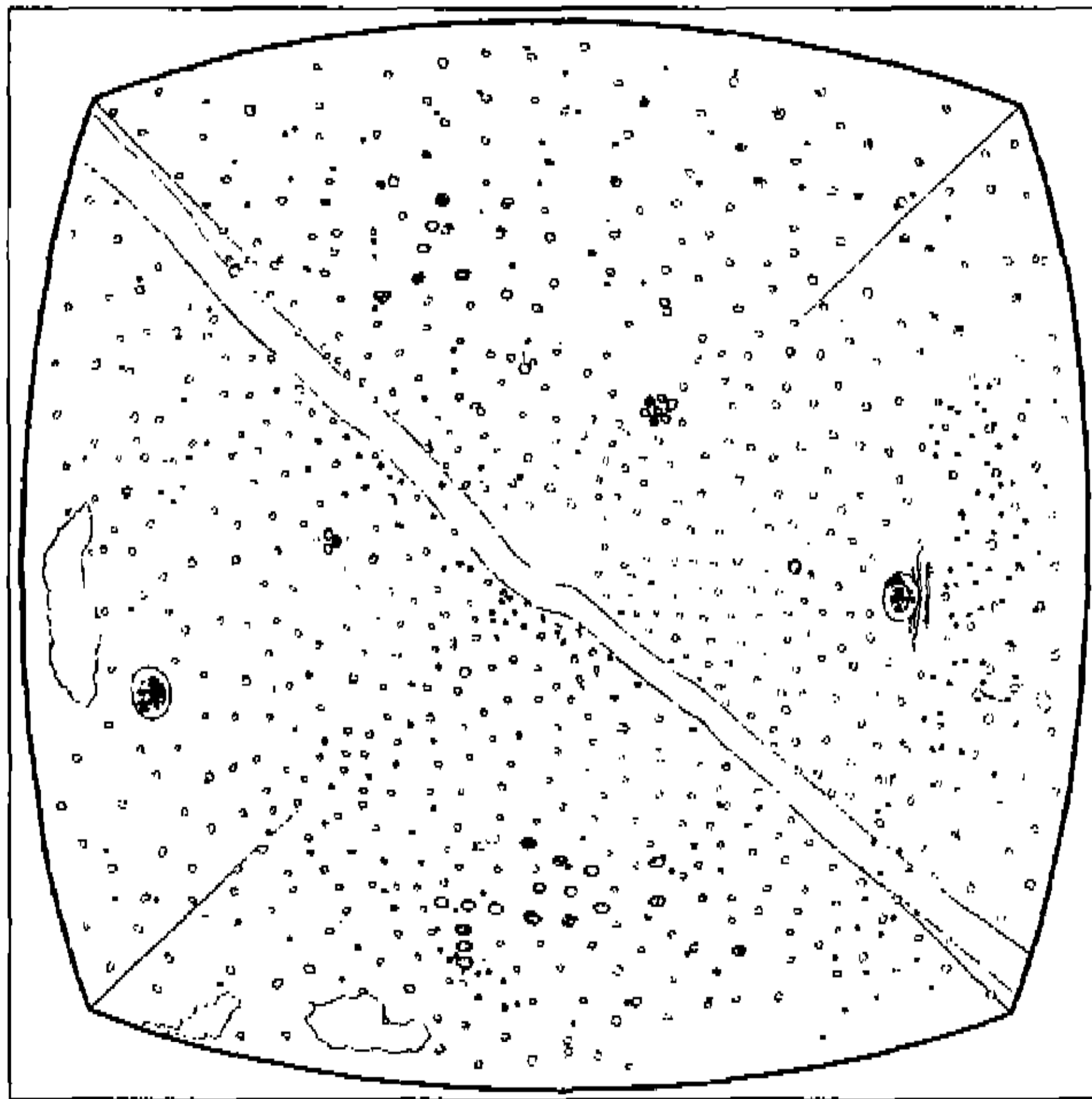


그림 20 唐章懷太子 李賢墓(711) 後室 천정 성상도
(『中國古代天文文物圖集』 No.59, 右東日象, 左西月象)

무덤 前室의 궁륭 천정부에 日月과 銀河水 별들이 그려져 있으며, 日象과 月象은 각기 동남과 서남쪽에 치우쳐 위치하였다. 무덤 後室의 궁륭 천정부에 도 은하수와 日月星辰이 그려져 있으며, 동쪽에 삼족오가 묘사된 日象이 있고

(36) 劉士文·陳奕純·王本興, 1994 『中國隋唐五代藝術史』, p.36

서쪽에 계수나무와 옥토끼가 있는 月象이 약간 서북쪽으로 치우쳐 보인다.⁽³⁷⁾
(그림 20)

이처럼 章懷太子墓의 내용은 唐代 전반기 고분벽화의 천문성수도 형식을 대표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그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唐墓에 묘사된 방위 표지는 日月象과 四神圖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日象과 月象은 묘실 천정부의 동서 방위 표지로 그려져 있다. 그런데 四神圖는 朱雀과 玄武가 배제된 채 靑龍과 白虎의 두 가지로만 내세운 점이 특징적이다. 물론 무덤으로 들어가는 墓道の 양벽에 그린 탕도 있겠지만, 묘실 내부에 다시 四神圖를 그리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四神圖에 대한 관념이 매우 퇴색되었음을 보여준다. 이같은 경향은 이미 남북조시기에서도 부분적으로 보이던 흐름이다. 山西 壽陽 賈家莊의 北齊 定州刺史 庫狄迴洛墓(562년)에서 묘도 동서벽에 靑龍, 白虎, 朱雀, 忍冬, 인물 등을 그렸는데, 玄武가 빠져 있으므로 사방위를 수호하는 四神圖 관념으로 보기 어렵다.⁽³⁸⁾ 이렇게 사신도 맥락이 아닌 朱雀의 경우는 일반적인 신수의 하나인 瑞鳥 또는 鳳凰으로 해석하는 편이 나을 듯하다.

둘째, 묘실의 천정부 가득히 그려진 별들이 하늘의 별자리를 묘사하였다기 보다는 일종의 장식적 효과를 의도한 것으로 파악된다. 왜냐하면 그 묘사된 별들의 크기가 거의 균일하며 또한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무슨 별자리로 同定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동서에 해와 달을 덧 붙여 그것이 하늘의 天穹 세계를 담아내려했던 것임을 보여준다. 이같은 장식적 별그림은 唐墓의 벽화가 이전 남북조시기 일부 무덤벽화에서 하늘의 별자리를 묘사하려던 방식과는 매우 다른 맥락임을 드러낸다. 따라서 발굴보고서에서 이들을 은하수로 해석하고 있지만, 이런 점에서 은하수라 하기 보다는 별그림 장식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8세기 唐墓의 벽화에서 천문성수 관념은 매우 약화되는 특징을 보여주며, 같은 시기에 조성된 의덕태자묘 및 영태공주묘에서도 이러한 측면이

(37) 陝西省博物館·乾縣文敎局 唐墓發掘組, 「唐章懷太子墓 發掘簡報」(『文物』 72년 7기)

(38) 王克林, 「北齊 庫狄迴洛墓」(『고고학보』 79년 3기)

확인된다. 그의 唐韋洞墓(中宗 韋后의 동생, 708)의 묘도에 靑龍과 白虎 외에 朱雀를 더 그렸다고 하지만 玄武가 없기 때문에 四神圖 전부를 갖춘 것은 아니다.⁽³⁹⁾ 다만 陝西 西安 東郊 蘇思勛墓(745)의 묘실 북벽과 남벽에 玄武와 朱雀가 묘사되어 있기도 하며,⁽⁴⁰⁾ 西安 高樓村 高元珪墓(756)에서 묘도 양벽에는 靑龍·白虎의 들을 그렸고 棺床의 북쪽과 남쪽에 玄武와 朱雀를 그린 점이 특이하다.⁽⁴¹⁾ 그러다 8세기 후반 唐墓 제3기로 넘어가면 벽화고분의 쇠퇴와 함께 이같은 천문 방위 상징들이 사라지며, 일상 생활 풍속도가 중심 제재로 묘사된다.

이상의 중원 지역 唐墓 벽화들과 달리 新疆 투르판 또는 敦煌 지역에서 뚜렷한 천문성수 그림들이 발견되어 좋은 대조를 이룬다. 다음 아사탑나 76호묘의 것은 墓室壁畫는 아니지만 이러한 이해에 도움을 준다.

5) 투르판 아사탑나 제76호묘의 絹本 복희·여와 일월성수도

1967년 신강 투르판 아사탑나 古墓群 제76호묘에서 길이 1.84m, 폭 85cm의 彩色 絹本이 발굴되었다. 人首蛇身의 남녀 두 사람이 꼬리를 서로 꼬은 채 10여개의 별자리에 에워싸여 있다. 오른쪽의 伏羲는 왼손에 곱자(方形을 그리는데 쓰이는 矩)와 黑斗를 들었으며, 왼쪽의 女媧는 오른손에 規(원을 그리는데 쓰이는 콤파스)를 들고 있다. 그 위로 주렴 모양의 별들 가운데에 빛살 모양으로 태양을 상징하는 日象이 보이고 그 맞은 편 아래쪽에 역시 주렴 모양의 별들 가운데에 月象으로 보이는 도형이 있다. 복희·여와의 주변으로 연결선이 있는 여러개의 별자리가 묘사되어 있다(그림 21).

복희·여와 도상은 殿堂에 그려지기로는 前漢 景帝의 아들 恭王餘가 건립한 魯靈光殿이 처음이라 하나 전하지 않으며, 이후 동한 畫像石의 소재로 널리 쓰인다. 신강 투르판 지역의 것으로는 魏氏 高昌 시기의 墓葬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한다.⁽⁴²⁾

(39) 陝西省 文物管理委員會, 「長安縣 南里王村 唐韋洞墓 發掘記」(『文物』 59년 8기)

(40) 『墓室壁畫』(中國美術全集 繪畫編 12) 중 王仁波의 도판설명 No.131

(41) 賀梓城, 「唐墓壁畫」(『文物』 59년 8기)



그림 21 唐 新疆 吐魯番 阿斯塔那 76
호묘 복희·여와 일월성수도 (『新疆維
吾你自治區博物館圖錄』 No.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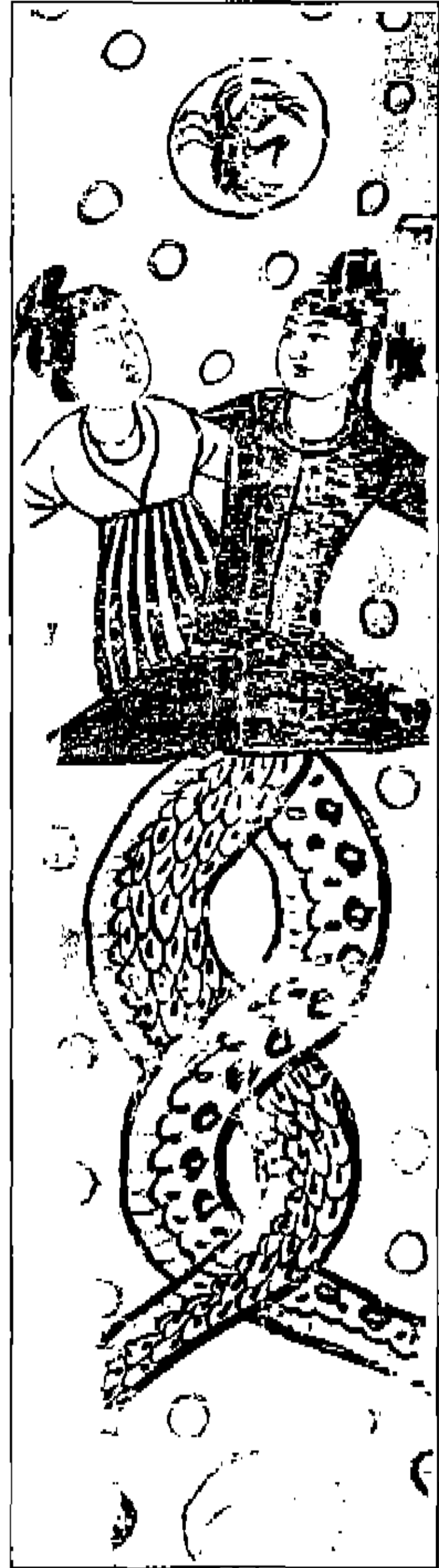


그림 22 唐 Turfan 墨線
絹畫의 복희·여와 일월
성수도 (8세기, 뉴델리박
물관, 『한국문양사』 p.83)

두 인물이 손에 들고 있는 規矩는 각기 圓과 方을 그리는 도구로, 중국 고대의 天圓地方적 우주론을 상징한다. 또한 복희·여와는 중국 신화에서 인류의 시조로 묘사되는 인물이므로, 이 도상이 담고 있는 의미는 인류의 근원적

인 준칙을 天地 日月 星辰의 운행 질서 원리에서 찾으려는 천문우주론적인 세계관의 표출로 이해된다.

그리고 복희·여와가 日月象과 規矩를 든 형식은 이미 漢畫像磚에서 산견되는 것이지만, 투르판의 것은 거기에다 별자리를 덧붙였다는 점에서 매우 특징적이다. 墨線 絹畫로 된 또다른 복희·여와 일월성수도(그림 22) 역시 그 같은 형식을 보여준다. 이곳의 日象에는 三足鳥가 묘사되어 있으며, 아래쪽 월상은 초생달 모양이다.⁽⁴³⁾ 이런 종류의 그림이 이곳에 적지 않게 발견되었다.

이렇게 투르판 지역에는 일월성수 도상에 대한 관심이 현저한데, 다음 아사탑나 38호묘의 천정 성수 그림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다.

6) 투르판 아사탑나 제38호묘(7세기中-8세기中)의 日月·二十八宿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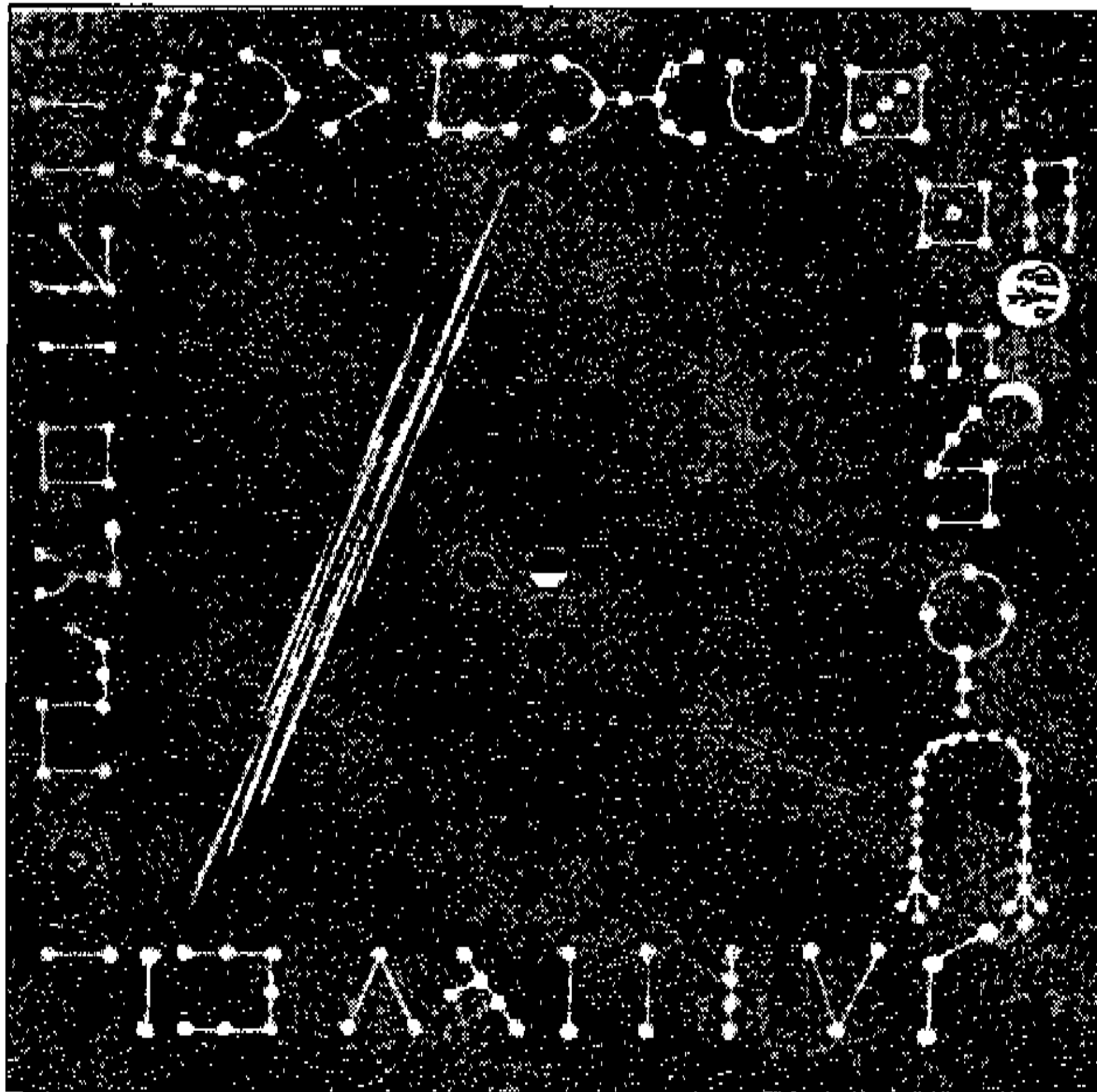


그림 23 新疆 吐魯番 阿斯塔那 38호묘(7세기中-8세기中) 日月·二十八宿圖 (『문물』 73년 10기, 『中國古代天文文物圖集』 No.66, 좌우상하 각기 북남서동 방위, 좌하 日象, 우상 月象)

(43) 임영주, 1983 『한국분양사』, 미진사, p.83

新疆 吐魯番縣 阿斯塔那-哈拉和卓 古墓群에서 1963년 아사탐나 42기와 합라 화탁 14기 등 모두 56기의 무덤이 발굴되었으며, 그 시기는 魏晉에서 隋唐까지에 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아사탐나 古墓群 중 제38호묘(64TAM38)의 묘실 천정부에 매우 완전한 형태의 28수 그림이 발견되었다. 별은 흰색 원점에 연결선이 있으며, 중앙 부분에 달의 位相 변화와 관계 있는 듯한 다섯 개의 반점이 있다. 또한 그 동북 쪽에는 三足鳥가 든 紅色 원형의 日象이 있다. 서남쪽에는 白色 원형의 月象 속에 계수나무와 옥토끼가 그려져 있으며, 그 바로 옆에 또다시 초생달 모양의 달이 함께 묘사되어 흥미롭다. 천정 북쪽에 흰색 선들이 몇 가닥 줄쳐져 있는데 은하수를 상징한 것으로 추정한다.⁽⁴⁴⁾(그림 23)

이처럼 뚜렷한 28수 별그림이 묘실에 그려진 배경을 이해하는 일환으로 다음의 敦煌星圖를 살펴보자.

7) 唐代의 敦煌 星圖와 全天 星圖 자료

끝으로, 唐代의 천문성수도 흐름을 균형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고분벽화는 아니지만 돈황 지역의 文獻 星圖 몇 가지를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앞서 검토한 여러가지 唐代 墓室壁畫에서의 성수도 흐름과 달리 천문 관측에 기초한 보다 객관적인 星圖들이 唐代 중엽 돈황 지역에서 널리 발견되기 때문이다. 고분벽화에서의 성수도가 기본적으로 무덤 묘실에 그려진 회화 양식의 하나로 조망된다면, 다음 敦煌 星圖 두 가지는 중국에서 현존하는 最古의 全天 星圖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1907년 영국인 Stein이 敦煌 藏經洞에서 두루마리 9천여종을 발견하였는데, 그 중에 S3326호로 명명된 敦煌 星圖 甲本이 있다(그림 24). 여기에는 모두 1350여개의 별들이 北極 紫微垣과 二十八宿 순서로 묘사되어 있으며 별자리 각각의 星名과 十二次, 入宿度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 甲本 敦煌 星圖의 작성 시기를 대략 8세기 중엽(天寶 초년) 이전으로 추정한다.⁽⁴⁵⁾

(44) 新疆 維吾爾 自治區博物館, 「吐魯番縣 阿斯塔那 -哈拉和卓 古墓群 清理簡報」 (『文物』 73년 10기)

그 다음 乙本
 敦煌 紫微垣 星圖
 (그림 25) 역시
 敦煌 藏經洞에서
 출토된 두루마리
 이며, 중국 돈황현
 박물관의 장품 번
 호 58호로 보관되
 어 있다. 남아 있
 는 부분의 머리부
 분에 紫微垣 星圖
 가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觀雲章
 과 觀氣章으로 구
 성된 『占雲氣書』
 1권이 남아 있다.
 그 내용은 관측되
 는 雲氣의 형상으
 로 전쟁의 승패를
 문자와 도형으로
 占辭한 것이다. 현
 존하는 乙本의 紫微垣 星圖는 아마도 甲本 敦煌星圖처럼 완비된 전천 성도의
 일부분일 것으로 추측한다. 그 시기는 갑본 성도보다는 후대이며 北宋 蘇頌
 (1020-1101)의 『新儀象法要』(1094)보다는 이전일 것으로 추정하는데, 특히 乙
 本의 字體가 五代의 서체와 가까운 점에 근거해서는 晚唐五代시기(약 10세기
 전반기)로 압축한다.⁽⁴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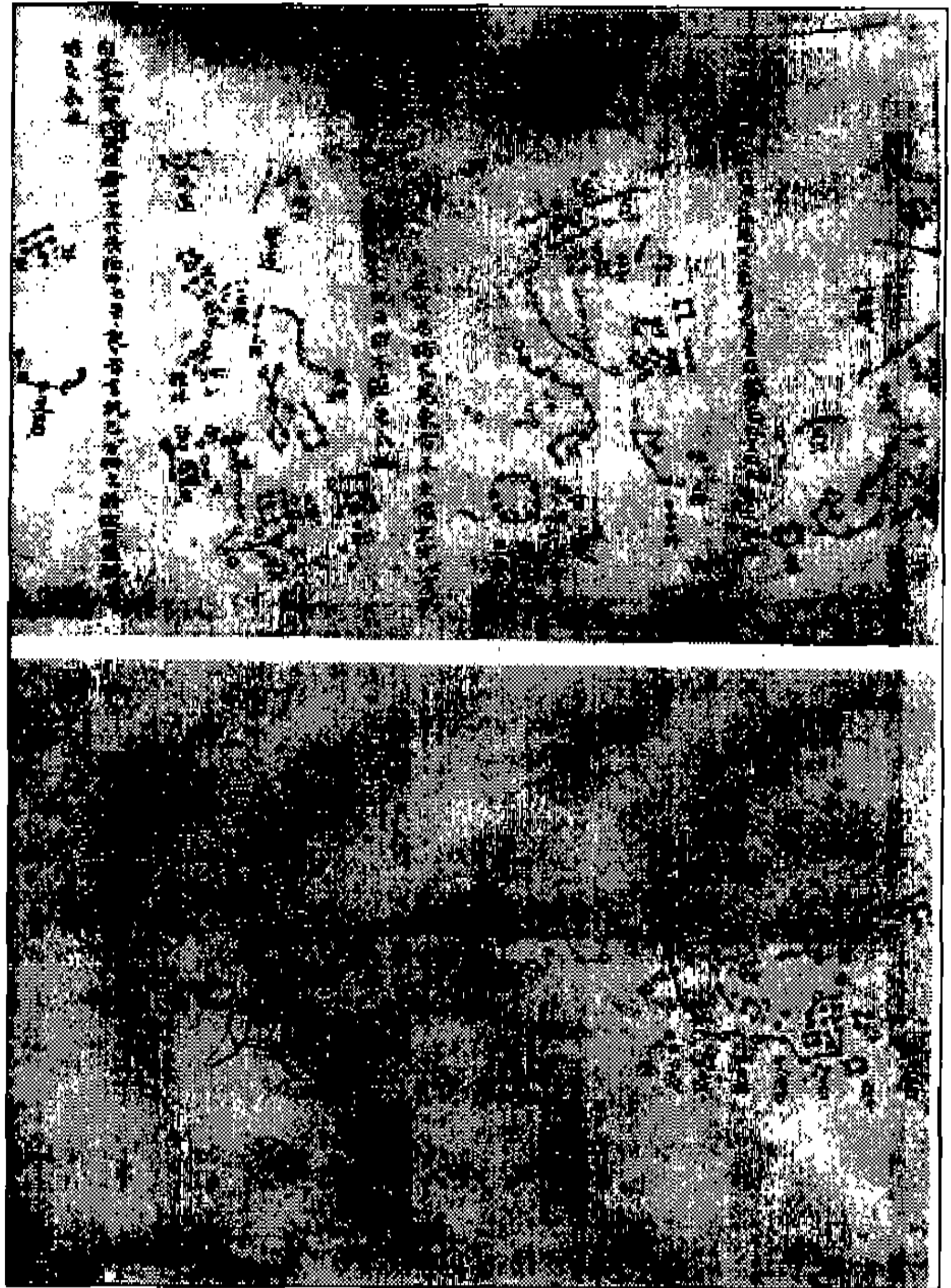


그림 24 敦煌 卷子 星圖 甲本 (8세기전반,
 『中國古代天文文物圖集』 No.62)

(45) 席澤宗, 「敦煌星圖」(『문물』 66년 3기) ; 馬世長, 「敦煌星圖的年代」(『中國古代天文文物論集』, 1989, 北京, 文物出版社)

(46) 馬世長, 「敦煌寫本紫微垣星圖」; 夏鼐, 「別一件敦煌星圖寫本—『敦煌星圖乙本』」(『中國古代天文文物論集』, 1989, 北京, 文物出版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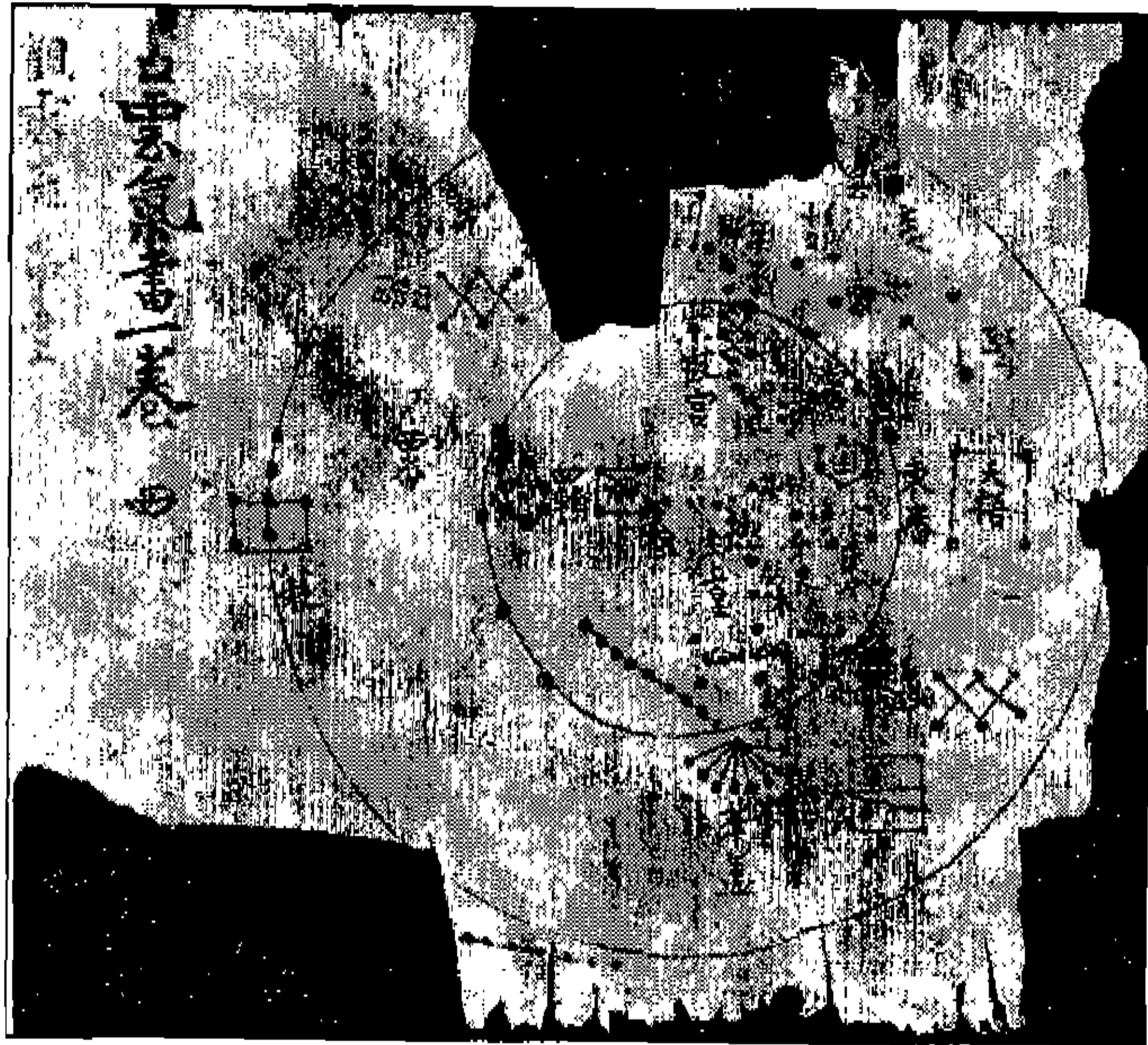


그림 25 敦煌 乙本 紫微垣 星圖 (10세기전반,
『中國古代天文文物圖集』 No.63)

이상의 두 敦煌 星圖와 더불어 歌詞 형태의 『丹元子步天歌』는 기존에 알려진 가장 오래된 천문성도로 유명한 것인데, 우리의 고려나 조선시대 書雲觀 등에서도 기본 교재로 사용하였던 중요한 작품이다. 이 『步天歌』의 작성 시기에 대해서 唐宋 시기에는 일반적으로 唐 開元 시기의 王希明이 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에는 隋代에 저작되었을 것이라는 설도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隋書』나 『舊唐書』의 經籍志에 著名이 수록되어 있지 않은 점이나 『晉書』와 『隋書』의 天文志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점, 또한 앞의 두 敦煌星圖 내용과 상당히 근접하는 것으로 미루어 唐開元 시기의 저작일 것으로 보는 견해가 설득력 있어 보인다.⁽⁴⁷⁾

이상 세 가지 星圖들은 중국의 全天 天文圖 역사에서 현존하는 최고의 작품으로 손꼽히는 것들이다. 그런데 그들 모두 대략 唐代에 출현한 점이 주목

(47) 夏鼐, 「別一件敦煌星圖寫本 - 『敦煌星圖乙本』」, pp.219-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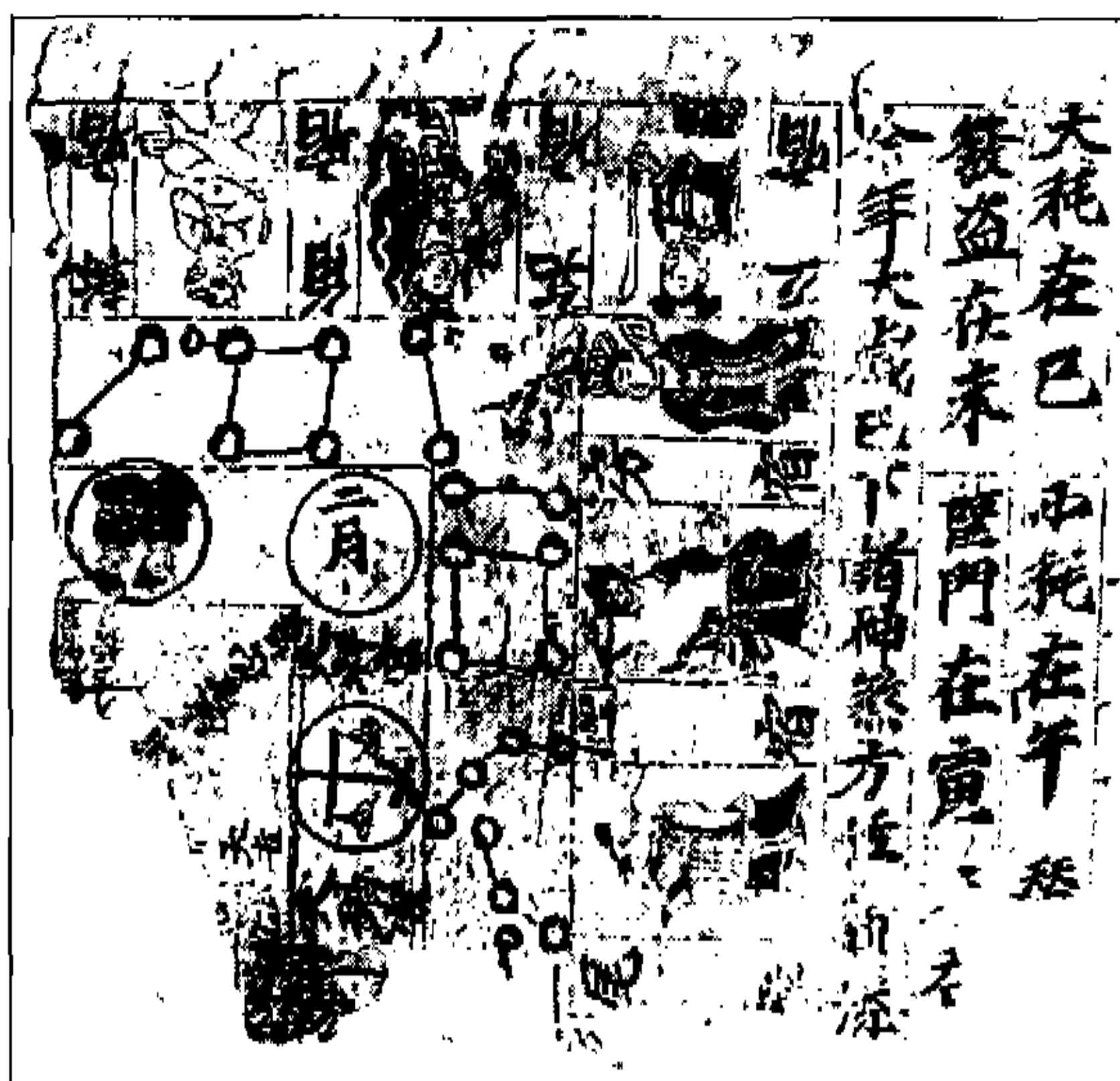


그림 26 新疆 吐魯番 출토의 唐代 星占圖
 (『中國古代天文文物圖集』 No.67)

된다. 비록 三國時代 吳의 太史令 陳卓(265-280년간 활동한 인물)과 劉宋의 太史令 錢樂之(440)가 그린 三家 星圖가 있었다 하더라도(『隋書』 天文志 上) 현전하지 않는다. 게다가 唐代의 『步天歌』 원본 또한 전해지지 않으며 현재 유통되고 있는 것은 그 이후 많은 변화를 거친 작품일 것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唐代 돈황 지역에 출현한 甲·乙 星圖는 唐代 전후의 천문 관측 정도와 거기에 담긴 천문사상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한편으로 돈황 지역에서 출토되었다는 점도 중국 천문학의 발전사에서 간과하기 힘든 대목이라 생각된다. 주지하다시피 唐代는 불교를 통한 인도 천문학의 도입이 매우 활발하던 시기이다. 돈황은 많은 돈황석굴 자료들이 보여주듯이 실크로드를 통하여 서역 문화가 유입되는 길목에 위치한 지역이므로, 그러한 불교의 천문 문화와 어떤 연계성을 쉽게 상정할 수 있는 곳이다.

新疆 투르판 지역에서 출토된 唐代의 星占圖(그림 26)는 二十八宿 그림과 함께 서역 전통의 黃道十二宮을 병기시켜 놓고 있어 주목되는 자료이다. 황도 십이궁 개념은 불교의 『日藏經』(隋代 羅連提黎耶舍)과 『宿曜經』(758, 唐代 不

空)에서 처음으로 중국에 소개된다.⁽⁴⁸⁾ 『宿曜經』에서는 日月五星의 七曜가 주 천하는 운행 궤도를 12궁과 28수로 획분하여 설명하면서, 12궁 명칭을 신고 있다.⁽⁴⁹⁾

이처럼 唐代의 천문성수도 전개 과정을 고찰할 때 당대 천문 전문가들의 작업들과 더불어 唐墓의 벽화 성수도 및 불교의 사찰 성수도, 도교의 도관 성수도 문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요청된다. 다만 이같은 작업은 고분벽화를 중심으로 하는 본논문의 자료 범위를 벗어나는 관계로 후일의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5. 결 론

이상에서 우리는 위진시기부터 수당대에 이르기까지 고분벽화에 나타나는 천문성수도 자료들을 검토하였다. 중국의 천문성수 세계관을 표현하는 주요 체재로 한대 이래 별자리그림과 함께 일월상이나 사신도, 복희·여와도 등이 사용되었으며, 이같은 흐름은 위진 수당대에도 꾸준히 적용되어 있었다.

본고에서 조사된 위진 수당대의 전체 86기 벽화고분을 기준으로 할 때, 별그림은 16기 고분에서, 일월상이 있는 경우는 15기, 사신도(청룡·백호만 있는 경우도 포함)는 19기 고분에서 확인되었다. 이 세 요소가 함께 묘사된 경우는 모두 8곳(9%)인데, 위진시기에는 발견되지 않으며, 북조의 北齊 벽화묘에서 처음 보이다가 唐墓에서 많아진다. 별그림은 위진십육국시기에 3기, 남북조시기에 6기, 수당대에 7기로 조금씩 많아지지만, 전체적으로 많은 비율은 아니다 (19%). 미처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것이나 새로 발굴된 자료를 추가한다면 이같은 수치가 달라지겠지만, 위진 수당대의 기본적인 경향을 드러내는 분석

(48) 江曉原, 1995 『歷史上的星占學』 (上海 科技教育出版社), p.37 ; 石云里, 1996 『中國古代科學記述史·天文卷』 (遼寧 教育出版社), p.258 ; 김일권, 1999 <도불의 천문사상 교섭> 「고대 중국과 한국의 천문사상 연구」 (서울대 종교학과 박사학위논문), p.116

(49) 『宿曜經』 (원명 文殊舍利菩薩及諸仙所說吉凶時日善惡宿曜經) (『佛敎大藏經』 53 冊, 1978, 台北 佛敎書局 編輯), p.1179-1207

값으로는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시기 \ 제재	벽화고분	별그림	일월상	사신도
위진십육국시기	33	3	4	3
남북조시기	17	6	4	5
수당시기	36	7	7	11
합계	86기	16기	15기	19기

〈표 6〉 위진 수당대 벽화고분의 천문 요소 분석 도표

그러면 이상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고구려 고분벽화의 것과 비교하면서 중국 고분벽화의 천문성수 관념이 담고있는 특성을 살펴보자.

첫째, 위진 수당대의 묘실벽화에서 四神圖의 비중이 매우 작다는 점이다. 唐墓의 것을 제외하면 위진남북조의 묘실벽화 50기 중 8곳 정도(16%)에 불과하다.⁽⁵⁰⁾ 같은 시기 고구려 고분벽화의 경우에는 약 80기(1992년 현재) 중 43%에 해당하는 34기에서 四神圖가 그려져 있었다.⁽⁵¹⁾ 唐墓의 경우도 전반기에 비교적 많이 그려지지만, 동서의 靑龍과 白虎 그림이 주류이다. 이처럼 들만 그리는 방식은 묘실 내부 벽면이 아니라 墓道 좌우에 그리기 때문인데, 이미 西晉시기의 嘉峪關 酒泉 新城 6호묘나 北齊의 山西 壽陽 賈家莊 庫狄迴洛墓(562)에서 보이던 형식이다. 四神 모두를 그린 東晉의 雲南 昭通縣 海後子 霍承嗣墓의 경우도 일반적인 좌청룡, 우백호 방식이 아니라 “右靑龍, 左帛虎, 朱雀, 玄武”라는 墨書 傍題⁽⁵²⁾를 남겨 특이하다. 白虎가 아니라 帛虎로 표현되어 있다. 이같이 사신도에 대한 뚜렷한 관념이 약한 데 비해, 고구려는 중·후반기 고분의 경우 네 벽면에 사신도만 묘사할 정도로 사신도 벽화 양식이 매

(50) 이중 온전한 四神圖가 그려진 것은 東晉시기의 것으로 雲南 霍承嗣墓와 朝陽 袁臺子の 石室墓가 있으며, 남북조시기에는 洛陽의 北魏 元乂墓(526), 河北의 東魏 茹茹公主墓(550), 太原의 北齊 婁叡墓(570), 山東의 東魏 崔芬墓(551) 등이 이에 해당한다.

(51) 전호태, 1993 「고구려의 오행신앙과 사신도」 (『국사관논총』 48), p.54

(52) 雲南省 文物工作隊 「雲南 昭通 後海子 東晉壁畫墓 清理簡報」 (『文物』 63년 12기)

우 발달하여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온전한 四神圖 형식이 주로 山西, 山東 또는 東北 지역 등에서 6-7세기에 발전한 점도 중원 지역간의 문화 전승 차이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주목되었다. 朝陽 지역의 東晉시기 袁臺子 石室墓, 太原市의 北齊 龔叡墓(570), 山東 崔芬墓(551) 그리고 太原市의 金勝村 6호, 7호, 337호 唐墓(7세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지역은 후일 天文星宿圖를 담은 遼代의 壁畫墓가 많이 발견되는 곳이기도 하다. 이런 측면은 사신도 전통이 매우 강한 고구려와 그 주변 지역간의 문화적 사상적 교류의 연계성을 제고하게 한다.

둘째, 묘실벽화에 日月象이 표현된 경우도 위진남북조시기에 8기, 당대에 7기 정도로 약 17%의 비율인데 비해, 고구려의 경우는 집안 지역에 8기, 북한 지역에 19기 등 27기로 전체 34%의 비율이다.⁽⁵³⁾ 이를 도식화하면 고구려 벽화묘의 셋 중에 한 곳에서는 일월상이 발견된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고구려의 벽화에서는 四神圖와 日月象에 대한 방위 표지 관념이 중원지역에 비해 매우 강하게 드러나 있다.

셋째, 성수도를 표현한 위진남북조시기의 묘실벽화는 9곳(18%)에 불과한데 비해, 같은 시기 고구려의 경우는 22기 고분(28%)에서 보인다. 이러한 통계 수치보다 더 주목되는 것은 고구려의 벽화에서 매우 발달한 “사방위 별자리” 관념이 중국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고구려의 경우 북쪽에는 北斗七星을, 남쪽에는 南斗六星을, 동쪽에는 入자 모양의 東雙三星을, 서쪽에는 人자 모양의 西雙三星을 주된 방위 별자리로 운용하였었다.⁽⁵⁴⁾ 이에 비해 위진수당대의 벽화고분에 묘사된 성수도는 수많은 별들을 천공 가득히 균일하게 흩으려 장식적인 느낌이 짙으며, 어떤 방위별로 특정한 별자리를 묘사한 흔적이 없다.

(53) 전호태, 1992 「고구려 고분벽화의 해와 달」(『미술자료』 50) :김일권, 1996 「고구려 고분벽화의 天文 관념 체계 연구」(『진단학보』 82호), p.16

(54) 김일권, 1996 「고구려 고분벽화의 별자리그림 考定」(『백산학보』 47호) :1996 「고구려 고분벽화의 天文 관념 체계 연구」(『진단학보』 82호) :1997 「고구려 고분벽화의 천문사상 특징」(『고구려연구』 3집) :1999 「각저총과 무용총의 별자리 고정과 고대 한중의 북극성 별자리 비교 검토」(한국과학사학회, 99년 11월 6일 가을발표회 발표문)에서 본인은 동쪽의 東雙三星을 心房六星으로, 서쪽의 西雙三星을 參伐六星으로 同定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山東 濟南의 北齊 道貴墓(571년)⁽⁵⁵⁾에서 동서 벽면에 日月象(日西月東)을 그리고 북쪽에 北斗七星, 남쪽에 南斗六星을 그린 경우가 있어 주목되었다(그림 9). 이같은 천문 방위 표지 체계는 北齊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방식인데, 고구려의 경우 道貴墓보다 160여년 앞선 덕흥리고분(408)에서 이미 뚜렷하던 것이므로, 고구려의 천문 관념을 모방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의 투르판 지역의 아사탑나 제13호묘(십육국시기, 그림 3)에 좌우의 日月象과 함께 두 개의 北斗七星을 그린 모습도 그 대칭적이면서 간략화된 구도가 고구려적인 맥락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더욱 인상적이다. 고구려의 장천1호분 천정막음들에 두 개의 북두칠성이 상하로 대칭된 형태로 좌우의 일월상과 함께 묘사되어 있다.

넷째, 고분벽화에 성수도와 함께 일월상, 사신도의 세 가지 천문 요소를 모두 묘사하는 형식은 위진십육국시기에는 거의 보이지 않으며, 남북조시기의 두 곳에 불과하다.(東魏 崔芬墓, 北齊 婁叡墓) 이에 비해 고구려의 경우는 15기 고분(19%)으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것은 천문 방위 표지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중국에 비해 고구려가 현저하였음을 보여준다. 앞서 말한 것처럼 고구려가 사방위 별자리라는 독특한 천문 체계를 구축한 이면에는 이같은 고구려적인 천문 세계관 맥락이 짙게 깔려있다고 하겠다. 천문에는 인문적인 세계관이 투영되기 마련이다. 고구려가 다양한 천문 상징들을 통하여 독자적인 우주의 질서 체계를 추구한 것은 그 스스로 지상의 질서체계의 중심에서 있음을 드러내는 우주론적 세계관의 포출이라 할 것이다.

唐代 초기 벽화묘에서 이런 방식이 적지 않게 보이는 점(모두 6기)도 오히려 고구려의 영향을 상정케 하였다. 태원시 金勝村 7호묘(696?)의 경우, 천정 네 벽면에 四神圖와 함께 그 위로 무수한 별그림을 묘사하였으며, 동서벽에는 다시 日月象을 그려 두었다(그림 13~16). 특히 서벽의 경우 白虎의 앞머리 부분에 月象과 별그림을, 반대편 동벽의 靑龍 윗부분에 日象과 별그림을 묘사한 모습은 고구려 약수리고분(5세기초) 동서 벽면의 구도와 흡사하였다(그림 17, 18). 唐墓의 경우는 비록 방위별자리가 아니라 장식적 별그림에 불과하기 때문에 고구려와 같은 별자리 방위 체계로 보기에에는 어렵지만, 일월상·사신

(55) 濟南市博物館, 『濟南市 馬家莊 北齊墓』(『文物』 85년 10기)

도·성수도의 세 가지 천문 요소로 네 벽면을 채우려 하였다는 점에서 고구려적인 경향을 읽게 된다.

이상에서 우리는 고구려 고분벽화가 담고있는 천문 세계관의 특성을 이해하는 일환으로 비슷한 시기인 위진 수당대의 고분벽화 자료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들의 배경이 되는 한대의 천문성수 관념을 미처 다루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한 편의 논문에 담기에는 너무 많은 분량이기도 하지만, 한대 이전의 자료는 古墳壁畫 뿐만 아니라 帛畫나 漆畫, 畫像石·畫像磚 등 여러 갈래로 전개되기 때문에 고구려 고분벽화의 양식과 직접 비교하기에는 또다른 관점이 요구된다. 이에 대한 연구는 다음 기회로 미루되, 고구려와 위진 수당대 천문성수 세계관의 배경을 탐색하기 위해서, 또는 중국의 전체적인 천문사상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서도 중요한 연구 작업이 될 것이다.

(필자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종교학과 강사)